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홍 대 식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대학생들의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이 데이트관계를 가진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들 요인과 아울러 사회교환변인들과 기타 관심 있는 변인들이 관계의 성질들에 관련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요인들은 13개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Buss와 Barnes(1986)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는 데이트관계를 가진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은 사회교환변인들과 기타의 관심있는 변인들과 함께 관계의 성질들(만족, 개입 및 애정)을 예측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특징에 의해 친밀한 관계의 상대(예컨대, 연애상대나 결혼상대)를 선택하는가? 특히, 사람들이 배우자선택시에 선호하거나 고려하는 후보상대의 특징이나 준거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배우자선택시에 선호하는 특징들에 관한 연구들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가족사회학 분야에서 보편적이었다(Powers, 1971). 또한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들은 심리학 내에서 생물학적 이론가들, 사회심리학자들 및 성격심리학과 가족치료의 이론가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평론들이 제시되어 왔다(예; Surra, 1990; Atwood, 1993). 여기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추세들을 Atwood(1993)가 제시한 이론적 관점들을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본 연구의 문제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우자선택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의 추세

배우자선택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이론상으로 생물학적 이론들, 사회심리학적 이론들 및 성격이론들과 가족치료이론들에서 접근되어 왔다(Atwood, 1993 참조).

배우자선택에 관한 생물학적 이론들은 진화와 자연선택에 관한 Darwin의 이론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왔다(Buss, 1988). Darwin의 성적 선택(또는 도태)이론은 개체들이 여성멤버가 지닌 생식에 관련된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 동성의 멤버들과 경쟁한다고 시사한다. 또한 배우자선택에 관한 생물학적 이론들은 본능들과 유전을 중심으로 삼는다. 생물학자들은 본능들이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선택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본능이론에 관련된 한 이론은 유전적 유사성이론인

* 이 논문은 199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에 도움을 준 박군석 선생, 박정윤, 이호신 및 장설희 대학원생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데(Rushton, Russell 및 Wells, 1985), 이 이론은 유전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지원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자인 Weinrich(1957)는 사회생물학적인 구혼관계(courtship)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겠다는 욕망을 전달하고 성취시키는 일련의 단계들과 신호들로서 구혼관계를 논의했다.

다른 생물학자인 Trivers(1972)는 배우자선택이 자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투자수준들에 의해 일부 좌우된다고 가정했다. 그는 인간과 같이 부모적 헌신이 많은 종에서 여성은 식량, 안식처, 영토 및 보호와 같은 부모적 투자에 관련된 자원들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남성과의 결합을 추구하고, 남성은 생식적 가치나 번식력과 관련된 후보 여성의 속성들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Buss, 1987 참조).

생리학적 관점에서, Dyer(1988)는 첫 눈에 반하는 현상, 즉 신체적 매력이나 “성적 화학”의 개념을 검토했다. 그는 이성애에 의한 자극에서 생긴 자율신경계의 흥분에 의해 호르몬들(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것들이 뇌의 쾌락중추에 영향을 주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사랑의 느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이론들보다 더 거시적 분석수준을 사용하는 사회심리학자들(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자들을 포함함)은 배우자 선택이 본능이나 유전적 유사성보다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았다고 가정한다(Eckland, 1982). 배우자선택에 관한 다수의 사회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문헌들은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 매력을 끈다”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서로 매력을 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다(Atwood, 1993). 사회심리학자들은 몇 개의 신체적 및 사회적 특징들과 배우자선택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 이러한 특징들은 연령, 사회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거주지의 근접성, 인종, 종교,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지능, 신체매력, 성격변인들, 자기개념, 자기존중, 역할정들의 유사성, 가치들의 유사성 및 사회적 교환변인들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은 적어도 거시적인 사회적 준거들의 면에서, 자기와 유사한 사람과 결혼하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Buss, 1985). 배우자들 간의 유사성에 관한 증거들이 많으며(Atwood, 1993), 이것들은 연령, 지리적 근접성, 사회경제적 특징들(예; 인종), 종교, 신체매력, 지위, 자기개념을 포함하며, 성격변인들에서는 부부들이 서로 유사했지만, 관계의 조화성에 관련된 변인은 없었다. 또한 역할이론과 가치이론은 각각 배우자 간의 역할합의와 가치 유사성을 강조한다(Berscheid와 Hatfield, 1978 참조).

사회심리학적 이론들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회교환이론(Thibaut와 Kelley, 1959; Centers, 1975)은 배우자들이 서로 제공하는 보수들과 부담들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보수들과 가장 적은 부담들을 일으키는 사람과 짝지으려고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사성가설을 넘어서고 있다.

관계의 발전단계들을 고려하는 이론들은 관계의 단계들에 따라 상이한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Kerckhoff와 Davis(1962)는 구혼관계(courtship)의 단계들에 따라 사회적 속성들과 성격적 욕구들이 달리 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들은 가치일치가 구혼관계의 초기단계들에서 작용하고 욕구상보성이 후기단계들에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지만, 다른 반복연구(Levinger, Senn 및 Jorgensen, 1970)는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Reiss(1960)는 관계발전과정에 초점을 두고서, 사랑에 관한 수레바퀴이론(wheel theory of love)을 제시했다. 그는 라포르, 자기개방, 상호의존 및 성격적 욕구 등의 단계로 관계가 발전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순서적 단계이론이 Murstein(1970)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남녀쌍들이 결혼하기 이전에 세 개의 단계를 통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의 자극단계는 신체적 매력에 의해 크게 영향받으며, 두 번째의 가치단계는 가치와 태도의 유사성이 중요하며, 마지막의 역할단계는 결혼했을 경우의 역할들이나 상호작용들에 대한 주관적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ate와 Koval(1983)은 모든 순서적 단계모형들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반복연구들이 이론적 단계들에 대해 많은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이론들 중에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는 못했지만, 정신역동적 성격이론들과 가족치료이론가들의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다.

정신역동이론들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무의식적 측면과 성격의 상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Freud(1914)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이성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Benedek(1959)은 연인들이 서로 자아이상들의 교환을 제안한다고 주장하였다. Ohmann(1947)은 사람들이 자아결합이라고 느껴지는 성격의 부족한 부분을 제공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비슷하게, Reik(1957)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고 원하기는 하지만 성취시키지 못한 특징들을 지닌 이성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가정했다.

Hartmann(1950)은 성격발달의 수준으로서 아동기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에 대한 관계, 즉 대상관계들의 수준을 기술했으며, 이것들은 일차적 자기애의 수준, 욕구충족 수준 및 대상항상성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첫 번째 두 개의 수준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에서 많은 난점을 갖는다고 기술했다.

Blanck와 Blanck(1968)는 자기 자신을 타인들로부터 분화(또는 차별화)시키려는 개인의 평생의 투쟁을 강조했으며, 성숙한 사람이 개인의 확고한 정체감을 가졌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Mahler, Pine 및 Bergman(1975)은 아동의 어머니와의 분리와 개별화과정을 강조했으며, 다른 이론가들도 또한 배우자선택에 관한 논의들에서 이러한 분리 - 개별화과정을 이용했다(예, Blanck와 Blanck, 1968; Gans, 1975).

따라서 정신역동적 이론의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리성적 발달단계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Freud, 1914), 대상관계들에 있어서 대상항상성수준상에 있으며(Hartmann, 1950), 어느 정도 분리 - 개별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완

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Mahler, 1965).

상기의 이론가들이 타인을 성공적으로 사랑하는 잠재능력의 발달을 논의한 반면에, 몇 명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서로 매력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들을 논의했다. Winch(1952, 1955, 1958)와 Winch, Ktones 및 Ktones(1954)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배우자선택이 태도들과 성격특성들의 동질성에 기인된다고 가정하는 것(Burgess와 Wallins, 1953)과는 반대로, 욕구들의 상보성이론을 제시했다. 이 연구자들은 배경변인들에 관한 사회학적 발견들과 성격발달에 관한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통합시켰다. 이 이론은 결혼상대의 후보들이 “적격자들의 한 범위”내에서 먼저 선정되며, 그 범위는 시초에 사회적 요인들의 동질성을 통해 형성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비록 배우자선택이 연령, 사회계층, 거주지의 근접성, 인종, 종교, 신체 매력 등의 측면에서 동질적일지라도, 심리적 욕구들의 측면에서는 동질적이기보다 상보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Winch는 배우자들이 시초의 유사성들을 넘어서, 동기(동인)들의 이질성, 즉 욕구상보성에 의해 선택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Winch를 지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실패해 왔다(Murstein, 1976).

많은 가족치료이론가들(Aldeus, 1973; Aroaz, 1974; Dicks, 1967; Napier, 1971, 1988 및 Sager, 1976)은 배우자선택에 관한 상이한 욕구상보성이론을 채택해 왔다. Winch의 이론이 “개인적” 선택이론들, 즉 A가 B를 택하는 이유에 초점을 둔 반면에, 이들 임상가들은 A와 B가 “공동적” 의사결정으로서 서로를 택하는 이유를 취급하고자 했다. 즉, 앞에서 제시된 개인내의 정신분석적 입장들과는 달리 이들 이론가는 배우자선택의 대인관계적 과정을 검토했다. 이들 이론가는 각각의 파트너가 상대방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은연적인 합의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무의식적 공동 협력이 있다고 시사한다(Sager, 1976). 이와 비슷하게, Miller, Nunnally 및 Wackman(1988)의 배우자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 감정 및 이상이 확증받게 되는 식으로 서로 파트너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파트너들은 숨겨진 시인

되지 않은 유사한(또는 동일한) 미해결된 갈등에 기초해서 결합하며,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신이 특징상으로 상대방과 정반대라는 인상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가정되고 있다.

아마 가장 상세화된 배우자선택과정은 대관계들을 강조하는 가족치료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을 것이다(예; Slipp, 1984, 1988). 이 정신분석적 성향의 결혼치료이론은 배우자선택의 하나의 적극적 요인들로서 무의식적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둔다(Nadelson, 1978).

많은 가족치료이론가들 중에서 몇 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Satir(1988)는 배우자선택에서 부모들의 영향을 강조했으며, Whitaker(Neill과 Kniskern, 1982에서 재인용)는 결혼의 시작을 감정전이현상으로 가정하였으며, Kirschner와 Kirschner(1986)는 개인이 성장한 가정의 역할을 인정했고 배우자들이 자기정의를 상대방을 포함시키게끔 확장시킨다고 가정했다.

그 밖에도, Scarf(1987)는 배우자선택이 성격들과 생활경험들의 상보성에 의한다고 가정했으며, Hendrix(1988)도 또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또는 억압된 자기에 의해 생긴 내부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들며, 그 결과로 자신의 성격과 상보적인 성격을 지닌 짝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장한 가정의 부모들의 영향을 강조했다. Bowen(1961, 1966, 1976, 1978)은 개인의 자기분화를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 자기분화란 감정과정과 사고과정을 구분짓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일컫는다. 그는 개인의 분화수준과 유사한 분화수준을 지닌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가족치료이론가들은 정신분석이론들과 개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신분석이론들의 영향을 받은 Winch의 욕구상보성의 개념이 여러 치료이론가들(예; Scarf, 1987; Hendrix, 1988; Jackson, 1957; Jacobson과 Margolin, 1979; Jackson, 1957)에 의해서 중시되고 있다.

요약하면, 배우자선택과정들은 생물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이론과 가족치료이론들에서 취급되어 왔다. 논쟁들은 대개 유사한 사람들끼리 매력을 느끼거나 결혼하거나,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매력을 느끼거나 결혼을 한다는 주장들을 중심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들은 적어도 사회적 변인들의 측면에서 배우자들 간의 유사성들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기본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경험적 연구들이 거의 없다. 또한, 배우자선택에 관한 가족치료가들의 기본적 가정들도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오지 않았다(Atwood, 1993). 배우자선택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아무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못하고 있다(Napier, 1988). 배우자선택과정은 완전한 무작위적 과정이 아닌 것 같으며, 즉 결정가능한 생물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들과 상관이 있으며, 또한 개인적인 심리적 지각과 주관적 정의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받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의식적인 과정은 아닌 것 같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

배우자선택시에 사람들이 고려하거나 선호하는 상대방의 특징들의 범위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단일한 특징에 대한 선호들을 연구하고 있다. 예컨대, Sadalla 등(1987)은 지배성이 남녀의 매력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Feingold(1990)는 남녀가 신체 매력에 가치를 두는 정도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했다. 두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몇 개의 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Schoen과 Wooldredge(1989)는 연령, 인종 및 교육수준의 동질혼 여부를 분석했으며, South(1991)는 신체매력, 젊음, 소득, 취업안정성 등을 분석했으며, Feingold(1992)는 사회경제적 지위, 야망성, 성품, 지능 등의 몇 개의 비신체적 특징들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했다. 세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비교적 다수의 결혼상대의 특징들을 취급하고 있다. 예컨대, Brown(1994)은 한국 대학생들의 12개의 결혼상대자의 중요성을 평정했으며, Buss 등(1990)은 37개 문화의 사람들의 결혼상대자의 여러 특징들의 선호도를 비교했다. 국내연구로서, 김경신, 김오남 및 윤상희(1997)는 몇 개의 배우자선택에 관한 이전 연구들(강은숙, 1981; 송재희, 1988; 홍준숙, 1987; Melton과 Thomas, 1976; Surra 등, 1990)에 기초해서 수입, 재

산, 학력, 외모, 건강, 매력도, 정서적 성숙 등의 14개의 특징들의 선호수준을 연구했다. 또한, 성한기(1997)는 성격, 능력, 건강, 외모 등의 11개 특징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애상대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선택의 비율과 순위를 제시했으며, 연애상대의 특징들(서창원, 1992; 김정옥·김형섭, 1994; 이수애, 1995)과 결혼상대의 특징들(이성애, 1987; 김혁곤, 1984; 이기숙, 1984; 조성경, 1987; 서창원, 1992; 김경희, 1994; 김정옥·김형섭, 1994; 김은영, 1995)에 관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들과 자신의 연구결과들을 비교했다.

사람들이 배우자선택시에 고려하거나 중요시하는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부류의 연구들 중에서 마지막의 세 번째 연구들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두고 있는 비교적 다수의 특징들이 취급되었을지라도, 그러한 연구들은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연구들에서 취급된 특징들의 포괄성에 관련된 것이다. 연구에서 취급된 특징들의 숫자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따라서 어떤 연구가 사람들이 고려하는 특징들을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예컨대, 앞에서 제시된 연구(성한기, 1997)에서 사용된 11개의 특징들이 사람들이 배우자선택시에 고려하는 대표적 특징들인지를 결정짓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Buss와 Barnes(1986)는 Gough(1973)에 의해 개발된 76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을 연구했는데, 이러한 특징들의 숫자는 위에서 제시된 몇 개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숫자들과 큰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비교적 다수의 특징들이 취급되었을지라도, 이들 특징들이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것인지 분명치 않다. 예컨대, 한 연구(김경신·김오남·윤상희, 1997)에서 조사된 특징들로서, 수입, 재산, 직업 등은 “경제적 자원”이라는 한 개의 심리적 차원을 취급하는 것일 수 있으며, 유우머감각, 정서적 성숙 및 대인관계의 원만성은 “성품의 긍정성”의 한 개의 심리적 차원을 취급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직업, 학벌, 경제능력, 가정환경과 같은 특징들(예; 성한기, 1997)도 심리적으로 개인이

소지한 하나의 일반적 자원의 요인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특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선택(또는 연애상대의 선택)시에 고려되는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특징들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특징들의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비교적 다수의 특징들을 취급하고, 이들 특징들의 심리적 요인들이나 차원들(예컨대, 중요도와 바람직스러움)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Buss와 Barnes(1986)의 연구이다. 이들은 Gough(1973)에 의해서 개발된 결혼상대의 특징들이나 속성들의 바람직스러움을 요인분석했으며, 그 후의 몇 개의 연구들(Howard, Blumstein 및 Schwartz, 1987; Kenrick, Sadalla, Groth 및 Trost, 1990; Regan, 1984)도 이들의 자료를 이용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중요성이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들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제시된 6개의 연구들은 상이한 숫자의 특징들을 요인분석했으며, 얻어진 요인들의 숫자와 내용은 연구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요인들의 숫자의 면에서, 76개의 특징들을 사용한 Buss와 Barnes(1986)의 연구는 9개의 요인을 얻었고, 81개의 특징들을 사용한 신철균(1997)의 연구는 7개의 요인을 얻었다. 32개의 특징들을 사용한 Regan(1998)은 6개의 요인을 얻었다. 가장 적은 14개의 특징들을 사용한 Howard, Blumstein 및 Schwartz(1987)와 24개의 특징들을 사용한 Kenrick, Sadalla, Groth 및 Trost(1990)의 연구는 각각 5개의 요인을 얻었다. 따라서, 추출된 요인들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특징들의 숫자나 범위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다.

또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요인들의 내용도 연구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친절성과 배려성(또는 긍정적 감정들)의 요인은 6개의 모든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매력성(또는 신체매력)의 요인과 지위·자원의 요인은 각각 5개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는데, Buss와 Barnes(1986)의 연구에서는 매력성 요인이 나타나지

표 1. 친밀한 관계들(결혼상대, 연애상대 등)에서의 상대방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이나 중요성의 평정치들의 요인분석 결과들

Buss와 Barnes (1986)(1)	Howard, Blumstein 및 Schwartz(1987)(2)	Kenrick, Sadalla, Groth 및 Trost(1990)(3)	Regan(1998)(4)	Fletcher, Simpson, Thomas 및 Giles(1999)(5)	신철균(1997)(6)
1. 친절성 - 배려성	1. 긍정적 감정의 표현성	1. 지위	1. 대인관계기술과 민 감성	1. 친절성 - 신뢰성	1. 자원(교육, 경제, 가 정 및 성품)
2. 재미있는 능력	2. 매력성	2. 매력성	2. 지적임	2. 환력성 - 매력성	2. 성실성
3. 예술적 - 지적임	3. 운동을 잘함	3. 친절성	3. 신체매력	3. 지위 - 자원	3. 사교성 - 재미있음
4. 종교적임	4. 공격적임	4. 건강	4. 사회적 지위	4. 친절성 - 충직성	4. 매력성
5. 가정적임	5. 야망있음	5. 가정중심성	5. 대인적 권력 (지배적 - 공격적)	5. 열정성	5. 도덕성 - 성숙성
6. 직업적 지위			6. 가정중심성 (종교적, 야망, 자녀를 원함)		6. 태도 - 가치의 긍정성
7. 자녀를 좋아함					7. 가정과 자녀를 원함
8. 정치적 보수주의					
9. 태평하고 적응적임					

- (1) 76개 특징들의 결혼상대로서의 바람직스러움 평정치들이 사용됨.
- (2) Buss와 Barnes(1986)의 연구를 확장했고, 14개 문항이 사용됨.
- (3) 24개의 특징들이 사용되었고(13개는 Buss와 Barnes, 1986에서 사용됨), 4개의 관여수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평정시킴.
- (4) 32개의 특징들(Buss와 Barnes, 1986; Kenrick 등, 1993; Regan과 Berscheid, 1997에서 사용됨)의 우연적 및 장기적 관계들의 선호도들을 분석함.
- (5) 1, 2 및 3요인들은 파트너의 특징들(49개)의 중요성 평정치들이고 4와 5요인들은 관계의 특징들(30개)의 중요성 평정치들의 요인분석결과임.
- (6) 81개의 특징들(Buss와 Barnes, 1986; Howard 등, 1987; Kenrick 등, 1990 및 자체의 예비조사에서 얻었음)의 결혼상대 결정시의 중요성 평정치들임.

않았고 Howard, Blumstein 및 Schwartz(1987)의 연구에서는 지위 - 자원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과 자녀의 요인은 Howard 등(1987)과 Fletcher 등(1999)의 연구들을 제외한 4개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종교성요인과 사교성 - 재미있음의 요인은 각각 3개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는데, 종교성요인에 대해서 Buss와 Barnes(1986)의 연구는 하나의 독립적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Regan(1998)과 신철균(1997)의 연구는 각각 가정중심성요인 내와 태도 - 가치요인 내의 일부 특징들로서 나타났다. 지적임요인은 Buss와 Barnes(1986) 및 Regan(1998)의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이 요인은 전자의 연구에서 예술성요인과 함께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보수주의와 태평하고 적응적임의 2개의 요인들은 Buss와 Barnes(1986)의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몇 개의 공통요인들과 특수요인들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각각의 연구에서 취급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숫자와 범위의 차이에 기인된 것 같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대표적이거나 포괄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상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가급적 최대로 광범위한 특징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어떤 특정 문화(예; 미국)에서 얻어진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중요성이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은 다른 문화들에 일반화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요인들의 구조들이나 내용들은 문화들 간에 공통성이 있을지라도, 각 요인 내에 속하는 특징들이나 요인부하들, 또는 특징들의 중요성이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의 평정치들 상에서 문화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문화차에 관한 증거는 Buss 등(1990)의 33개 국가의 9,474명에 대한 문화비교에서 나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연구의 일반적 결론으로서, 문화가 배우자특징의 선호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검토된 31개의 배우자특징들에서 문화가 14%의 변량을 설명했으며, 특히 성적 순결함에 대해서 문화차가 가장 컸으며, 가정일을 잘함과 가정과 자녀를 원함의 특징들에서 큰 문화차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한국인의 배우자선호도에 관한 연구들을 위해서 주로 미국에서 얻은 요인들이나 특징들을 사

용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배우자특징들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중요성이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을 추출하려는 이전 연구들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 연구들이 모두 긍정적 특징들을 취급하고 부정적 특징들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 분야의 연구들이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에 주로 기인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은 선택되는 것과 선택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바로 원하는 측면들과 원치 않는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개인적 중요성이나 바람직스러움을 취급한 것은 선택과정들에서 주로 긍정적 속성들이나 특징들을 고려하게끔 만들었고, 그 결과로, 부정적 속성들이나 특징들을 무시하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결혼상대의 선택에서 고려되는 속성들이나 특징들은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될 수 있으며, 바로 후자의 측면들에 대한 부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들이 결혼상대를 구할 때에 중요시하거나 원하는 특징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수집하고, 이 특징들의 부정적 측면들을 포함시켜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 바람직스럽지 못함(또는 좋음 - 나쁨)의 정도의 요인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들은 결혼상대의 선택에 관한 더 포괄적인 장차의 연구들을 가능하게끔 만들 것이다.

결혼상대의 특징들과 관계의 만족과 개입간의 관계: 기대 - 가치이론의 한 적용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우자선택에 관한 이론들은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거나 중시되는 특징들과 그 이유들을 취급하고 있다.

배우자선택에 관한 진화적 접근에서 Buss(1988)는 배우자선택에서 나타나는 성차들을 논의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생식능력을 중시하는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자원투자의 능력과 의지를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여자의 생식적 가치가 신체매력, 연령, 건강, 신체적 및 행동적 특징들에 달려있고, 남자의 자원보유력이 금전, 재산, 지위 및 야망성과 근면을 포함하는 자원획득을 일으키는 행동특징들과 신호들에서 과시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남녀의 생식적 가치가 진화적이거나 유전적 바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심리학적 설명은 아니다. 즉, 이것은 배우자선택의 양상들이 생물학적 바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을 뿐이며, 개인이 어떤 심리적 과정에 의해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사회교환이론들(예; Thibaut와 Kelley, 1959)은 생물학적 이론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한 특징들을 강조하지만, 그 설명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교환 이론들은 사람들이 중시하는 배우자특징들이 개인에 대해 보수와 부담을 주는 가(value)들을 갖고 있으며, 많은 보수가(또는 적은 부담가)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은 매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개념상으로 강화이론의 전통을 이어 받은 이론들로서 개인에게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들이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들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다.

아마 강화이론들에서 출발된 사회교환이론들은 핵심개념들(예; 보수와 부담)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론들과 연결되는 것 같다. 예컨대, 의사결정이론들은 사회적 강화이론들이나 사회교환이론들과 같이, 사람들이 보수들을 얻고 부담들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가정한다(Taylor, Peplau, 및 Sears, 1994).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이론들은 사람들이 여러 행위들(또는 조치들)의 보수들과 부담들을 계산하고 꽤 논리적이고 이성적 방식으로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주는 선택지를 택한다.

많은 의사결정이론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각각은 약간 다른 용어들과 개념들을 사용한다(한덕웅, 1985 참조). 예컨대, 유인이론(incentive theory)은 의사결정이 여러 가능한 선택지들의 장점들(긍정적 유인들)과

단점들(부정적 유인들)을 비교해서 고찰하고 나서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다른 의사결정이론인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은 유인이론에다가 각각의 선택지들의 가능성(또는 확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첨가시킴으로서 유인이론의 이익들과 부담들을 고려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확장시킨다(Edwards, 1954; 한덕웅, 1985, pp. 53-54 참조). 이 이론은 의사결정들이 2개의 요인들, 즉 (1)각각의 가능한 성과나 선택지의 가치(value)와 (2)각각의 성과가 의사결정으로부터 실제로 생기는 확률(또는 가능성; likelihood)이나 기대(expectancy)의 곱이나 조합에 기초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대-가치이론은 배우자의 특징에 대한 선호현상들을 심리과정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남자들이 여자들의 신체매력을 중시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능력을 중시하는 현상들(Buss, 1988)은 생물학적이거나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그러한 특징들이 가치(value)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특징들을 소유할 확률(expectancy)이 높은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가치이론은 배우자선택과정에 적용되어 오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가치이론을 사용해서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는 특징들과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현상들(즉, 관계의 만족과 개입)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배우자선택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중시하거나 고려하는 특징들이다. 따라서, 배우자선택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자료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고려하는 특징들이나 요인들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특징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거나 관계의 성질들에 상반되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들을 설정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관심있는 몇 가지 연구목적

들을 추가하였다:

- (1) 배우자선택의 요인들로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을 긍정적 특징들과 부정적 특징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2)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사람들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대-가치 이론을 적용해서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 (3) 실제의 데이트관계에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이 데이트관계의 성질들(관계의 만족, 개입 및 상대에 대한 애정)에 관련있는지를 기대-가치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부가적으로 사회교환이론적 변인들(예;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과 기타 연구들의 관심을 받아 온 변인들(예; 의사소통의 원활성, 신체매력)이 실제의 데이트관계의 성질들에 관련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들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관련성을 분석한다.
- (4) 본 연구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현재와 과거의(즉, 파탄된) 데이트관계들을 비교함으로써, 데이트관계의 파탄에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낸다. 이러한 접근은 이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횡단연구설계와 종단연구설계의 접근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5) 밀접한 관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온 성별요인이 본 연구에 취급하는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의 평가, 특징들이 밀접한 관계의 성질들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에 또한 관련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1: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우자선택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소유한 배우자를 선택하는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배우자선택에 관한 이론들은 각각의 이론적 틀 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서 선호하는가를 제시했으며, Buss와 Barnes(1986)

을 위시한 배우자선택의 선호 특징들에 관한 연구들도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거나 중시되는 특징들과 그 요인들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배우자선택시에 고려하거나 선호하는 특징들에 대한 종합적 분류나 요인분석이 이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배우자선택의 선호 특징들의 수집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첫째로, 배우자선택의 선호 특징들의 수집과 분석은 배우자선택시에 “원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원치 않는” 특징들은 연구의 관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배우자선택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특징들과 아울러 원치 않는 특징들을 모두 고려해서 상대방을 평가할 것이 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연구들은 후자의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는 전체의 특징들을 취급하지 않았다. 둘째로, 배우자선택의 선호 특징들에 관한 연구들은 미국인(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징들을 수집하고 분석했고, 따라서 한국과 같이 미국인들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고려하거나 선호하는 특징들은 다소 미지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배우자선택시에 원하는 상대방의 특징들을 수집하고, 이들 특징들을 중심으로 원치 않는 반대의 특징들을 작성해서,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는 전체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평정하고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배우자선택의 선호특징들에 대한 문화차는 여러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가정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요인들상의 구체적 차이에 관한 가설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서 한국인의 배우자선택의 선호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와 그 요인들을 분석하고, 관심있는 몇 개의 배경변인들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성신여대(여자=198명)와 성균관대(남자=219명, 여자=76명)의 남녀 학생들(전체=493명)이 본 연구에 참가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남자가 219명(44%)과 여자가 274(56%)이었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1학년이 116명(23%), 2학년이 190명(39%), 3학년이 121명(25%) 및 4학년이 66명(13%)이었다. 참가자들 중에서 현재 데이트관계가 있는 사람이 39% 그리고 없는 사람이 61%이었다.

도구 및 절차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판단지”라는 질문지가 만들어졌으며, 결혼상대를 선택할 때에 고려될 수 있는 235개의 특징들이 제시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서, Buss와 Barnes(1986), Howard 등(1987) 및 Kenrick 등(1990)에서 사용된 항목들이 포함되었고, 신철균(1997)의 연구에서 전문대학생들(136명)과 일반 대학생들(136명)에게서 얻은 81개의 특징들이 포함되었고, 홍대식(1998)의 연구과정에서 남녀 대학생들(N=612)에게서 얻은 예비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116개의 특징들이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특징들의 반대어를 만들어서 반대되는 특징들을 포함시켰으며 전체적으로 235개의 특징들이 사용되었다. 부가적으로, 반대어를 만들기에 적절하지 못한 특성들은 반대 특징들을 만들지 않았다(예; 대학졸업자임).

결혼상대의 특징들은 “결혼상대를 선택할 경우에 각각의 특징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의 측면에서, 7점 척도상에서 평정되었으며, 1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또는 나쁘다), 7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4는 바람직스럽지 않다와 바람직스럽다의 중간으로서, 그리고 이들의 중간에 있는 2와 3 그리고 5와 6은 각각 “약간”과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거나 바람직스럽다고 기술되었다.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7점 척도의 보기에서 기술된 7개의 숫자들 중에서 한 개의 숫자를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성별, 종교 등의 배경에 관한 몇 개의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질문지는 대학생들의 수업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실

시되었다.

결 과

(1)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좋음 - 나쁨)의 평균 평정치들

235개의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또는 좋다 - 나쁘다)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체 평균치와 남녀별 평균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피험자들에서 가장 높은 평정치를 받은 20개의 특징들은 서로 사랑함, 상호 좋아함, 대화가 통함, 상대의 부모에게 잘 대함, 성격(인간성)이 좋음, 상호 이해 가능함, 성품이 따뜻함, 상호 존경(존중)할 수 있음, 진감함,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 정직함, 긍정적(낙관적) 사고를 가짐, 상대방을 배려함, 신뢰성 있음, 성실함, 마음이 넓음, 정신적 성숙성이 있음,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대하기가 편안함, 자상함의 순이었다. 전체 피험자들에서 가장 낮은 평정치를 받은 20개의 특징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음, 폭력적임, 상대의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음, 신뢰성 없음, 상호 좋아하지 않음, 대화가 통하지 않음, 상호 이해가능하지 못함, 친절하지 못하고 이해성 없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음, 상호 존경(존중)할 수 없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음, 정직하지 않음, 성격(인간성)이 좋지 않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음, 대하기가 편안하지 않음, 능력 없음, 도덕적(양심적)이지 않음, 인생목표가 없음, 자기주관이 없음, 나를 위해 주지 않음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받았던 2개의 특징들(서로 사랑함과 상호 좋아함)은 “상호 매력”에 관련된 특징들이었으며, 나머지 16개의 특징들은 “긍정적 성품”에 관련된 특징들이었다. 가장 낮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받았던 특징들은 20개 중에서 12개가 가장 높은 평정치를 받았던 특징들의 반대의 특징들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정치를 받은 특징(즉, 서로 사랑하지 않음)은 “상호 매력”에 관련된 특징이었으며 9개의 특징들이 “긍정적 성품”의 반대 특징들이었다. 따라서, 가장 높거나 낮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받은 특징들은 주로 “상호매력”의 유무에 관련된 특징들과 “긍정적 및 부정적 성품”에 관련된 특징

들이었다.

(2)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좋음 - 나쁨) 평정치들의 성차

평정된 235개의 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에서, 73개(31%)의 특징들이 남녀차이가 없었고, 91개(39%)의 특징들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부여했고, 71개(30%)의 특징들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부여했다(표 2 참조).

235개의 특징들에서, 전체 평균치 4.0(즉, 중간 평정치)을 중심으로 남녀의 평정치를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치 4.0 이상의 특징들(115개) 중에서, 30%(35개)에서 남녀차이가 없었고, 21%(24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부여했고, 49%(56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부여했다. 전체 평균치 4.0 이하의 특징들(120개) 중에서, 32%(38개)에서 남녀차이가 없었고, 56%(67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부여했고, 12%(15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부여했다.

요약하면, 긍정적 특성들(즉, 전체 평균치 4.0 이상)에 대해서 여자(49%)가 남자(21%)보다 더 높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보인 반면에(즉, 49% 대 21%), 부정적 특성들(즉, 전체 평균치 4.0 이하)에 대해서 여자(12%)가 남자(56%)보다 더 낮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를 보였다(즉, 12% 대 56%). 결론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긍정적 특성들에 대해 더 바람직스럽고, 부정적 특성들에 대해 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극단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에 대해 더 양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3)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좋음 - 나쁨) 평정치들의 요인분석

235개의 문항들의 상호 상관계수가 계산되고 요인 분석되었다. 상관행렬의 대각선에 1을 넣고 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3 - 15개)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의 요인해답들이 검토되었다. 각각의 요인해답들에서, 다른 요인들상에 0에 가까운 부하들과 .30 이상의 부하들의 숫자의 증감을 검토했

표 2.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평균 평정치들

특 징	전체(SD)	남 자	여 자
서로 사랑함	6.80(.70)	6.76	6.83
상호 좋아함	6.78(.66)	6.74	6.82
대화(말)가 통함	6.64(.60)	6.52	6.73***(-)
상대의 부모에게 잘 대함	6.59(.65)	6.50	6.66**(-)
성격(인간성)이 좋음	6.56(.67)	6.42	6.68***(-)
상호 이해 가능함	6.55(.66)	6.49	6.59
성품이 따뜻함	6.54(.74)	6.54	6.54
상호 존경(또는 존중)할 수 있음	6.48(.81)	6.39	6.55* (-)
건강함	6.42(.88)	6.20	6.60***(-)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	6.38(.87)	6.31	6.44
정직함	6.38(.84)	6.34	6.41
긍정적(또는 낙관적) 사고를 가짐	6.37(.78)	6.44	6.30* (+)
상대방을 배려함	6.37(.77)	6.37	6.37
신뢰성 있음	6.37(.98)	6.23	6.48** (-)
성실함	6.36(.76)	6.27	6.44* (-)
마음이 넓음	6.35(.82)	6.28	6.40
정신적 성숙성이 있음	6.34(.80)	6.27	6.39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6.32(.82)	6.32	6.32
대하기가 편안함	6.32(.91)	6.32	6.32
자상함	6.32(.83)	6.26	6.37
가정적임	6.32(.79)	6.23	6.39* (-)
가정 분위기가 좋음	6.31(.93)	6.25	6.36
나를 위해 중(즐겁거나 편안하게 해줌)	6.30(.85)	6.20	6.38* (-)
사려성 있음	6.30(.79)	6.33	6.27
인내력이 있음	6.29(.75)	6.25	6.33
센스(분별력) 있음	6.28(.77)	6.27	6.28
서로 성격이 맞음	6.25(1.48)	6.46	6.08** (+)
도덕적(양심적)임	6.25(.91)	6.44	6.09***(+)
순수함	6.24(.87)	6.27	6.44** (-)
폭력적이지 않음	6.22(1.19)	5.88	6.49***(-)
미혼임	6.21(1.12)	6.05	6.34** (-)
가치관(또는 신념)이 확립되어 있음	6.19(.96)	5.84	6.47***(-)
장래성 있음	6.18(.94)	5.61	6.64***(-)
계획성 있음	6.17(.86)	6.05	6.27** (-)
능력 있음	6.16(.97)	5.66	6.57***(-)
자신감 있음	6.15(.89)	5.78	6.44***(-)
평판이 좋음	6.15(.87)	5.89	6.35***(-)
대인관계가 좋음	6.15(.94)	5.90	6.35***(-)
사고 방식이 유사함	6.14(.94)	6.07	6.19
상냥함	6.13(.93)	6.30	5.99***(+)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	6.13(1.14)	5.89	6.32***(-)
생활력 있음	6.12(1.00)	5.72	6.45***(-)
서로 공통점이 많음	6.11(.92)	6.16	6.07
포용력 있음	6.11(.87)	5.89	6.28***(-)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6.10(.87)	5.93	6.23***(-)
인생 목표가 있음	6.10(1.00)	5.67	6.44***(-)
예의(매너) 있음	6.09(.87)	6.08	6.09
직업이 있음(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음)	6.09(1.12)	5.42	6.63***(-)
경제적 능력(또는 돈벌이 능력)이 있음	6.08(1.02)	5.55	6.50***(-)
정서적 안정성이 있음	6.07(.89)	5.87	6.23***(-)
교양 있음	6.06(.86)	5.96	6.14* (-)
사교성 있음	6.03(.85)	5.97	6.08
유우머 감각이 있음	6.03(.88)	5.84	6.18***(-)
착함	5.99(1.06)	6.30	5.74***(+)
결단력 있음	5.96(.94)	5.52	6.31***(-)
명랑함	5.95(.89)	6.03	5.88
자기 중심적이지 아님	5.93(1.09)	5.90	5.95
똑똑함(또는 지적임)	5.91(.95)	5.60	6.16***(-)
자기 주관이 있음	5.86(1.02)	5.46	6.18***(-)
적극적임	5.85(.96)	5.49	6.14***(-)

표 2. 계 속

특 징	평균치(SD)	남 자	여 자
겸손함	5.83(1.01)	5.89	5.78
취미(또는 기호)가 유사함	5.81(1.01)	5.73	5.88
답배를 피우지 않음	5.80(1.44)	6.08	5.58***(+)
표현성(감정이나 의사의) 있음	5.79(.87)	5.69	5.86* (-)
성적 매력이 있음	5.76(1.07)	5.95	5.62** (+)
세심함	5.75(.98)	5.82	5.70
자립적임	5.74(1.10)	5.35	6.04***(-)
재미 있음	5.74(1.05)	5.57	5.88** (-)
지적 수준이 높음	5.71(1.06)	5.28	6.05***(-)
순결함(다른 이성과의 성경험이 없음)	5.64(1.47)	5.84	5.48** (+)
가정 환경(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함	5.62(1.17)	5.38	5.81***(-)
대학 졸업자임	5.61(1.15)	5.20	5.94***(-)
연령이 적당함	5.58(1.23)	5.59	5.58
창의성 있음	5.57(1.07)	5.43	5.69** (-)
깨끗함	5.57(1.09)	5.92	5.30***(+)
집안 일을 잘 함	5.51(1.10)	5.65	5.39** (+)
차분함	5.47(1.12)	5.71	5.27***(+)
애교 있음	5.45(1.19)	5.97	5.04***(+)
개성 있음	5.44(1.01)	5.35	5.52
태평함(여유 있음)	5.44(1.05)	5.43	5.44
검소함	5.43(1.11)	5.76	5.16***(+)
돈이 있음	5.41(1.08)	5.06	5.70***(-)
서로 종교가 같음	5.39(1.33)	5.21	5.53** (-)
리더십이 있음	5.37(1.20)	4.62	5.96***(-)
말을 잘 함	5.35(1.07)	5.40	5.31
외모가 잘 생겼음	5.34(1.15)	5.67	5.08***(+)
귀여움	5.33(1.21)	5.82	4.95***(+)
얼굴이 잘 생겼음	5.32(1.13)	5.53	5.16***(+)
웃을 잘 함	5.30(1.12)	5.27	5.33
성취욕(야망)이 있음	5.28(1.24)	4.63	5.80***(-)
좋은 평판의 대학 졸업자임	5.27(1.19)	4.73	5.69***(-)
가문(가정 배경)이 좋음	5.26(1.23)	4.85	5.59***(-)
서로 키가 어울림	5.24(1.27)	5.22	5.26
가정 경제수준이 높음(부유함)	5.19(1.11)	4.77	5.53***(-)
나보다 뒤떨어지지 않음	5.18(1.24)	4.58	5.67***(-)
스포츠를 잘함	5.17(1.20)	4.73	5.52***(-)
음악을 잘함	5.15(1.20)	5.34	5.00** (+)
키가 큼	5.11(1.24)	4.60	5.51***(-)
개방적임	5.10(1.11)	4.91	5.26** (-)
외향적임	5.08(1.15)	4.79	5.31***(-)
체격이 좋음	5.01(1.39)	4.28	5.60***(-)
외모를 잘 가꾸(화장, 이발 등)	5.00(1.22)	5.16	4.88* (+)
예술적임	4.96(1.19)	5.14	4.82** (+)
남자다움	4.83(1.87)	3.78	5.66***(-)
미술을 잘함	4.79(1.17)	5.01	4.62***(+)
소박함	4.71(1.16)	5.06	4.43***(+)
나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없음	4.64(1.68)	4.83	4.49* (+)
화를 안 냄	4.60(1.29)	4.64	4.57
종교가 있음	4.59(1.30)	4.50	4.66
자기 희생적임	4.58(1.31)	4.99	4.26***(+)
형제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님	4.31(1.13)	3.90	4.63***(-)
전통적이 아님	4.20(1.11)	3.82	4.50***(-)
이타적임	4.20(1.88)	4.68	3.82***(+)
출신지역이 같음	4.16(1.25)	4.04	4.25
술을 마심	4.14(1.23)	4.14	4.15
여자다움	3.94(2.19)	5.89	2.38***(+)
출신지역이 다름	3.83(.89)	3.91	3.77
전통적임	3.78(1.16)	4.30	3.37***(+)
술을 마시지 않음	3.77(1.50)	3.84	3.70
형제 중에서 첫 번째임	3.74(.93)	3.98	3.55***(+)

표 2. 계 속

특	징	평균치(SD)	남 자	여 자
종교가 없음		3.67(1.21)	3.73	3.61
여자답지 않음		3.65(1.81)	2.15	4.86***(-)
말 수가 많음		3.46(1.26)	3.65	3.30**(+)
말수가 적음		3.40(1.03)	3.36	3.43
예술적이지 못함		3.40(.99)	3.23	3.53**(-)
소박하지 않음		3.35(1.08)	3.04	3.61***(-)
내향적임		3.27(1.16)	3.60	3.01***(+)
체격이 좋지 않음		3.23(1.10)	3.33	3.14
전문대학 졸업자임		3.23(1.22)	3.88	2.71***(+)
서로 키가 어울리지 않음		3.22(1.04)	3.35	3.11*(+)
스포츠를 잘 하지 못함		3.20(1.02)	3.49	2.96***(+)
가정환경(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지 않음		3.19(1.07)	3.47	2.97***(+)
얼굴이 잘 생기지 못함		3.15(1.03)	2.83	3.41***(-)
서로 종교가 다름		3.12(1.31)	3.23	3.03
외모가 잘 생기지 않음		3.11(1.02)	2.82	3.34***(-)
귀엽지 않음		3.08(1.05)	2.66	3.42***(-)
키가 작음		3.07(1.15)	3.56	2.69***(+)
가문(가정배경)이 좋지 않음		3.07(1.11)	3.40	2.81***(+)
좋지 못한 평판의 대학의 졸업자임		3.04(1.21)	3.42	2.74***(+)
연령이 적당하지 않음		3.02(1.11)	3.11	2.95
복종적임		2.98(1.53)	3.79	2.33***(+)
남자답지 않음		2.98(1.77)	3.84	2.30***(+)
고등학교 졸업자임		2.97(1.43)	3.63	2.45***(+)
세심하지 않음		2.91(1.05)	2.92	2.90
가정 경제수준이 낮음(가난함)		2.89(1.12)	3.40	2.48***(+)
옷을 잘 입지 못함		2.88(1.08)	2.77	2.97*(-)
리더십이 없음		2.85(1.20)	3.54	2.30***(+)
취미(또는 기호)가 유사하지 않음		2.84(1.09)	3.05	2.67***(+)
나보다 뒤떨어진		2.84(1.43)	3.90	1.99***(+)
집안 일을 잘 하지 못함		2.82(1.05)	2.63	2.97***(-)
개성 없음		2.82(1.09)	2.84	2.80
돈이 없음		2.80(1.16)	3.39	2.33***(+)
애교 없음		2.74(1.06)	2.24	3.13***(-)
외모를 잘 가꾸지 못함(화장, 이발 등)		2.73(.97)	2.63	2.81
나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있음		2.69(1.35)	2.81	2.59
창의성이 없음		2.69(1.03)	2.95	2.49***(+)
자기 희생적이지 않음		2.66(1.05)	2.63	2.68
개방적이지 않음		2.63(1.19)	2.89	2.42***(+)
태평하지 않음(여유 없음)		2.62(1.07)	2.75	2.53*(+)
유우머 감각이 없음		2.62(1.06)	2.78	2.50**(+)
순결하지 않음(다른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음)		2.61(1.36)	2.49	2.71
담배를 피움		2.57(1.41)	2.03	3.00***(-)
소극적임		2.57(1.16)	3.01	2.21***(+)
말을 잘 하지 못함		2.56(1.04)	2.74	2.41**(+)
차분하지 않음		2.54(1.07)	2.43	2.62*(-)
재미 없음		2.51(1.07)	2.74	2.32***(+)
사고방식이 유사하지 않음		2.51(1.13)	2.59	2.45
검소하지 않음		2.43(1.11)	2.19	2.63***(-)
서로 공통점이 적음		2.36(1.03)	2.34	2.38
명량하지 않음		2.35(.99)	2.43	2.29
성적 매력이 없음		2.32(1.10)	2.27	2.36
경제적 능력(또는 돈벌이 능력)이 없음		2.29(1.27)	3.10	1.65***(+)
성취욕(야망)이 없음		2.23(1.16)	2.87	1.71***(+)
이전에 결혼한 일이 있음		2.18(1.28)	2.09	2.24
뚝뚝하지 못함(또는 지적이지 않음)		2.17(1.15)	2.48	1.92***(+)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음		2.17(1.07)	2.57	1.85***(+)
자립적이지 않음		2.16(1.07)	2.74	1.70***(+)
깨끗하지 않음		2.15(.97)	1.94	2.32***(-)
표현성(감정이나 의사) 없음		2.15(.98)	2.37	1.98***(+)
순수하지 않음		2.11(.96)	2.04	2.16

표 2. 계 속

특 징	평균치(SD)	남 자	여 자
직업이 없음(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음)	2.09(1.30)	3.09	1.29***(+)
겸손하지 않음	2.08(.86)	2.08	2.08
자신감 없음	2.08(1.08)	2.47	1.76***(+)
건강하지 않음	2.04(1.11)	2.30	1.83***(+)
성품이 차가움	2.04(1.11)	1.90	2.15* (-)
사교성 없음	2.04(.90)	2.26	1.87***(+)
센스(분별력) 없음	2.02(1.06)	2.06	1.98
결단력 없음	2.02(1.07)	2.53	1.61***(+)
포용력 없음	2.00(1.17)	2.12	1.91* (+)
지적 수준이 낮음	2.00(1.02)	2.33	1.74***(+)
가정적이 아님	1.95(.86)	1.94	1.96
상냥하지 않음	1.93(.91)	1.89	1.96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음	1.90(.90)	2.05	1.79** (+)
정신적 성숙성이 없음	1.90(.95)	2.16	1.70***(+)
계획성 없음	1.88(.90)	2.16	1.66***(+)
인내력이 없음	1.88(.92)	2.06	1.74***(+)
자상하지 않음	1.88(.93)	1.94	1.84
착하지 않음	1.87(.99)	1.76	1.96* (-)
가치관(또는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1.87(.88)	2.16	1.64***(+)
지배적임	1.81(1.08)	2.00	1.66** (+)
사려성 없음	1.79(.96)	1.77	1.80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	1.78(1.03)	2.27	1.39***(+)
생활력 없음	1.78(1.02)	2.40	1.28***(+)
평판이 좋지 않음	1.77(.81)	1.96	1.61***(+)
교양 없음	1.77(.91)	1.81	1.74
이기적임	1.75(.98)	1.77	1.74
공통의 관심사가 없음	1.75(1.01)	1.80	1.70
화를 잘 냄	1.72(.87)	1.86	1.61** (+)
정서적 안정성이 없음	1.71(.84)	1.84	1.62** (+)
자기 중심적임	1.70(.92)	1.80	1.62* (+)
장래성이 없음	1.70(1.01)	2.25	1.26***(+)
마음이 좁음	1.69(.80)	1.85	1.55***(+)
성실하지 않음	1.69(.87)	1.83	1.58** (+)
예의(매너) 없음	1.67(.91)	1.59	1.73
부정적(또는 비관적) 사고를 가짐	1.66(.84)	1.79	1.55** (+)
나를 위해 주지 않음(즐겁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음)	1.65(.92)	1.76	1.56* (+)
자기 주관이 없음	1.62(.88)	1.85	1.43***(+)
인생 목표가 없음	1.61(.94)	2.04	1.27***(+)
도덕적(양심적)이지 않음	1.60(.92)	1.49	1.69* (-)
능력 없음	1.60(.99)	2.03	1.26***(+)
대하기가 편안하지 않음	1.57(.88)	1.63	1.52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음	1.53(.70)	1.59	1.48
성격(인간성)이 좋지 않음	1.51(.82)	1.66	1.39***(+)
정직하지 않음	1.51(.87)	1.51	1.52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음	1.43(.77)	1.56	1.33** (+)
상호 존경(또는 존중)할 수 없음	1.43(.86)	1.45	1.42
대인관계가 좋지 않음	1.41(.80)	1.50	1.34* (+)
친절하지 못하고, 이해성이 없음	1.41(.72)	1.51	1.32** (+)
상호 이해 가능하지 않음	1.39(.74)	1.49	1.31** (+)
대화(발)가 통하지 않음	1.35(.69)	1.43	1.29* (+)
상호 좋아하지 않음	1.32(.71)	1.33	1.31
신뢰성 없음	1.32(.71)	1.32	1.32
상대의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음	1.24(.68)	1.22	1.26
폭력적임	1.21(.60)	1.35	1.10***(+)
서로 사랑하지 않음	1.17(.51)	1.19	1.15

* $p < .05$, ** $p < .01$, *** $p < .001$.

- :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부여한 것임.

+ :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부여한 것임.

다.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의 요인해답들에서 요인수의 증가에 따른 상기의 2가지 준거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서(즉, 다른 요인들에 대한 0에 가까운 부하들과 .30 이상의 부하들의 숫자가 점진적인 증가와 감소를 보여서), 문항내용의 해석가능성, 즉 한 요인의 문항들이 이종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여부를 중심으로 해답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13개 요인해답이 각 요인 내에 포함된 문항들의 동질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이 해답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 해답 내의 각 요인들과 그에 속하는 문항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요인은 “결혼생활의 자원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직업적 및 경제능력적 자원들(직업 없음, 직업 있음, 경제적 능력 없음, 경제적 능력 있음, 부유함, 가난함, 돈이 없음 및 돈이 있음), 일반적 능력과 동기의 자원들(생활 능력 없음, 생활능력 있음, 능력 없음, 능력 있음, 리더십 없음, 리더십 있음, 성취욕 - 야망 - 있음, 성취욕 - 야망 - 없음), 지적 능력과 학력적 자원들(지적 수준이 높음, 지적 수준이 낮음, 좋은 대학의 졸업자임, 전문대졸업자임, 대학졸업자임), 가정배경적 자원(가문 - 가정배경 - 이 좋음과 좋지 않음), 신체적 자원(키가 큼, 키가 작음, 체격이 좋음, 스포츠를 잘함, 건강함) 및 성역할적 자원(남자답지 않음, 남자다움, 여자답지 않음)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2요인은 “긍정적 성품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친절성과 배려성(자상함,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상대방을 배려함, 사려성 있음, 성품이 따뜻함, 성격 - 인간성 - 이 좋음,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성실함, 정직함, 겸손함, 순수함), 예의(매너)와 교양(예의 - 매너 - 있음, 교양 있음) 및 가정적임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3요인은 “신체매력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얼굴(얼굴이 잘생겼음과 잘생기지 않음, 귀여움과 귀엽지 않음), 외모(외모가 잘생겼음과 잘생기지 않음), 복장(옷을 잘 입음과 잘 입지 못함), 성적 매력(성적 매력이 있음과 없음) 및 깨끗함(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4요인은 “부정적 성품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높은 부하를 지닌 대부분의 문항들은 2번 요인과 반대되는 특징들이었다.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친절성과 배려성이 없음(친절하지 못하고 이해성이 없음), 성실성이 없음(정직하지 않음, 신뢰성이 없음), 도덕성이 없음(도덕적이지 않음)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5요인은 “개성 없음 요인”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개성(개성 없음과 있음)과 유우머(유우머갑작이 없음과 있음, 재미없음)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6요인은 “개인적 착실성요인”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종교적(종교가 없음과 있음), 습관적(술을 마시지 않음과 마심, 담배를 피우지 않음과 피움), 성적(성경험이 없음과 있음) 및 관계적(나 이외의 이성과의 관계가 없음과 있음) 착실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7요인은 주로 부정적 성품의 특수요인으로서, “부정적 자기중심성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 요인에 높은 부하를 가진 문항들은 자기중심적임, 이기적임, 지배적임, 화를 잘 냄, 성격(인간성)이 좋지 않음 등이었다.

8요인은 “유사성 없음 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취미가 유사하지 않음, 사고방식이 유사하지 않음, 서로 공통점이 적음과 많음의 문항들에 높은 부하를 보였다.

9요인은 “사교성요인”으로서, 말 수가 적음, 외향적임, 사교성 있음, 명랑하지 않음, 재미있음의 문항들에 높은 부하를 보였다.

10요인은 “검소함요인”으로서, 검소하지 않음과 검소함의 문항들에 높은 부하를 보였다.

11요인은 “예술성요인”으로서, 예술적임, 미술을 잘함 및 음악을 잘함에 높은 부하를 보였다.

12요인은 “상호 매력요인”으로서, 상호 좋아함, 서로 사랑함과 사랑하지 않음에 높은 부하를 보였다.

13요인은 “미래 대비능력요인”으로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과 계획성있음에 높은 부하를 보였다.

표 3.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좋은) - 바람직스럽지 못함(나쁨)의 요인들

요인/문항	부하량	요인/문항	부하량
1. 자원	17.2	가문(가정배경)이 좋지 않음	.42
직업이 없음(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음)	.76	스포츠를 잘함	-.42
장래성 있음	-.72	형제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님	-.40
나보다 뒤떨어짐	.72	가정환경(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지 않음	.37
경제적 능력(또는 돈벌이 능력)이 없음	.71	건강함	-.36
장래성 없음	.68	정신적 성숙성이 없음	.35
여자다움	.67	평판이 좋지 않음	.34
경제적 능력(또는 돈벌이 능력)이 있음	-.67	스포츠를 잘하지 못함	.33
직업이 있음(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음)	-.66	내향적임	.33
생활력 없음	.65	가정분위기가 좋지 않음	.33
성취욕(야망)이 없음	.64	자기희생적임	.32
돈이 없음	.63	사교성 없음	.32
능력 있음	-.63		
가정 경제수준이 낮음(가난함)	.63	2. 긍정적 성품	7.2
전문대학 졸업자임	.63	자상함	.67
지적 수준이 높음	-.62	친절하고, 이해성 있음	.64
돈이 있음	-.62	성실함	.63
리더십이 있음	-.62	정서적 안정성이 있음	.61
가정 경제수준이 높음(부유함)	-.62	상대방을 배려함	.61
여자답지 않음	-.62	마음이 넓음	.61
좋은 평판의 대학의 졸업자임	-.60	정직함	.61
가문(가정배경)이 좋음	-.58	겸손함	.60
결단력 있음	-.57	사려성 있음	.59
리더십이 없음	.56	대하기가 편안함	.58
키가 큼	-.56	순수함	.58
생활력 있음	-.56	성품이 따뜻함	.58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	.55	포용력 있음	.57
나보다 뒤떨어지지 않음	-.55	인내력이 있음	.57
키가 작음	.55	나를 위해 줌(즐거거나 편안하게 해 줌)	.55
자립적이지 않음	.55	성격(인간성)이 좋음	.55
성취욕(야망)이 있음	-.54	상대의 부모에게 잘 대함	.54
체격이 좋음	-.54	자기중심적이지 않음	.53
고등학교 졸업자임	.53	예의(매너) 있음	.52
능력 없음	.52	교양 있음	.52
인생목표가 있음	-.52	상냥함	.52
대학졸업자임	-.52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50
남자다움	-.52	가정적임	.50
자기 주관이 있음	-.52	센스(분별력) 있음	.50
자신감 있음	-.51	명랑함	.50
적극적임	-.51	상호 이해 가능함	.49
결단력 없음	.50	상호 존경(또는 존중)할 수 있음	.48
인생목표가 없음	.50	중정적(또는 낙관적) 사고를 가짐	.48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음	-.49	차분함	.48
독목함(또는 지적임)	-.49	착함	.47
좋지 못한 평판의 대학의 졸업자임	.49	대화(말)가 통함	.46
자립적임	-.48	사고방식이 유사함	.46
소극적임	.46	취미(또는 기호)가 유사함	.46
가치관(또는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46	평판이 좋음	.44
남자답지 않음	.46	가정 분위기가 좋음	.43
복종적임	.46	성실하지 않음	-.41
자신감 없음	.45	가치관(또는 신념)이 확립되어 있음	.41
지적 수준이 낮음	.45	세심함	.40
계획성이 없음	.42	대인관계가 좋음	.39

표 3. 계 속

요인/문항	부하량	요인/문항	부하량
신뢰성 있음	.37	교양 없음	.38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	.36	자상하지 않음	.38
순수하지 않음	-.36	센스(분별력) 없음	.38
상호 좋아하지 않음	-.36	예의(매너) 없음	.38
표현성(감정이나 의사의) 있음	.36	상호 이해 가능하지 못함	.37
정신적 성숙성이 있음	.36	건강하지 않음	.36
창의성 있음	.35	폭력적이지 않음	-.32
미혼임	.35	부정적(비관적) 사고를 가짐	.30
집안일을 잘함	.34		
태평함(여유있음)	.34	5. 개성 없음	2.2
겸손하지 않음	-.33	개성 없음	.61
가정환경(사회경제적수준)이 유사함	.32	창의성 없음	.48
착하지 않음	-.32	유우머 감각이 없음	.46
소박함	.32	재미 없음	.41
포용력 없음	-.31	인내력이 없음	.41
마음이 좁음	-.30	개방적이지 않음	.40
가정적이 아님	-.30	개성 있음	-.37
		말을 잘 하지 못함	.36
3. 신체적 매력	3.1	표현성(감정이나 의사의) 없음	.33
얼굴이 잘 생겼음	.67	태평하지 않음(여유 없음)	.31
외모가 잘 생기지 않음	-.65		
얼굴이 잘 생기지 못함	-.65	6. 개인적 착실성	2.1
외모가 잘 생겼음	.63	종교가 없음	.57
외모를 잘 가꾸지 못함(화장, 이발 등)	-.59	술을 마시지 않음	-.55
외모를 잘 가꿈(화장, 이발 등)	.54	종교가 있음	-.54
귀여움	.52	서로 종교가 같음	-.53
귀엽지 않음	-.52	서로 종교가 다름	.52
애교 있음	.52	순결함(다른 이성과의 성경험이 없음)	-.51
애교 없음	-.51	술을 마심	.51
옷을 잘 입지 못함	-.50	담배를 피움	.50
옷을 잘 입음	.49	순결하지 않음(다른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음)	.50
성적 매력이 있음	.49	나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없음	-.41
성적 매력이 없음	-.46	나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있음	.39
깨끗하지 않음	-.46	담배를 피우지 않음	-.38
말을 잘 함	.42		
집안 일을 잘하지 못함	-.40	7. 부정적 자기중심성	1.5
깨끗함	.33	자기중심적임	.58
		이기적임	.49
4. 부정적 성품	2.8	지배적임	.44
친절하지 못하고, 이해성이 없음	.61	화를 잘 냄	.41
정직하지 않음	.58	성격(인간성)이 좋지 않음	.41
신뢰성 없음	.57	상냥하지 않음	.39
상호 존경(존중)할 수 없음	.57	대하기가 편안하지 않음	.38
자기 주관이 없음	.55	자기회생적이 아님	.34
도덕적(양심적)이지 않음	.50	폭력적임	.33
사려성 없음	.45	성품이 차가움	.31
차분하지 않음	.44		
똑똑하지 못함(지적이지 않음)	.43	8. 유사성 없음	1.4
대인관계가 좋지 않음	.42	취미(또는 기호)가 유사하지 않음	.57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음	.42	사고방식이 유사하지 않음	.53
공통의 관심사가 없음	.40	서로 공통점이 적음	.49
상대의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음	.39	서로 공통점이 많음	-.42
이전에 결혼한 일이 있음	.38	예술적이지 못함	.39

표 3. 계 속

요인/문항	부하량	요인/문항	부하량
9. 사교성	1.3	11. 예술성	1.2
말 수가 적음	-.52	예술적임	.65
외향적임	.43	미술을 잘 함	.60
사교성 있음	.43	음악을 잘 함	.59
명랑하지 않음	-.42		
유우머 감각이 있음	.42	12. 상호매력	1.2
재미 있음	.40	상호 좋아함	.64
개방적임	.33	서로 사랑함	.57
말 수가 많음	.30	서로 사랑하지 않음	-.48
		대화(말)가 통하지 않음	-.30
10. 검소함	1.2		
검소하지 않음	.44	13. 미래대비능력	1.0
검소함	-.43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	.41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음	.30	계획성 있음	.40

표 4.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운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N=493)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53	.16	.47	.59	.01a	.30	.35	.41	.25	.05a	.33	.36
2			.46	.60	.53	.31	.46	.62	.44	.54	.30	.54	.36
3				.35	.38	.13	.33	.30	.36	.24	.33	.19	.14
4					.48	.22	.38	.52	.30	.37	.24	.34	.28
5						.04a	.41	.47	.44	.29	.17	.31	.24
6							.13	.25	-.06a	.25	.11b	.17	.02a
7								.38	.27	.36	.26	.27	.17
8									.27	.47	.11b	.40	.25
9										.13	.22	.22	.20
10											.09b	.35	.16
11												.10b	.18
12													.23

* a와 b의 부호가 없는 수치는 모두 $p < .001$ 수준의 의의도임.

a: 의의없음임, b: $p < .05$ 임.

주성분 요인분석법에서, 요인들은 서로 직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각 요인의 문항총점들이 실제로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3개의 요인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계산되었다(표 4 참조). 가장 많은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요인들은 2요인(긍정적 성품)으로서 나머지 12개의 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그 다음이 4요인(부정적 성품)과 8요인(유사성 없음)으로서 각각 9개 요인, 1요인(결혼 생활의 자원)이 8개, 5요인(개성 없음)과 10요인(검소함)이 각각 7개, 그리고 3요인(신체매력)과 12요인(상호 매력)이 각각 6개의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

다. 다른 요인들과 가장 적은 상관을 갖고 있는(따라서, 비교적 독립적인) 요인들은 6요인(개인적 착실성; 1개), 11요인(예술성; 2개) 및 13요인(미래대비능력; 2개)이었다.

13개 요인들 간의 전체 상관계수의 숫자는 78개인 데, 이 중에서 .30 이상의 상관을 가진 것이 40개이었다. 따라서, 요인들 간에 상관이 상당히 있으며 요인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운 요인들의 신뢰도계수(α)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과 2는 .95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요인 3, 4 및 5는 .80

표 5.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점수들의 신뢰도계수(α)

	요인(문항수)												
	1 (64)a	2 (58)	3 (18)	4 (22)	5 (10)	6 (12)	7 (5)	8 (10)	9 (8)	10 (2)b	11 (3)	12 (4)	13 (2)
α	.95	.95	.88	.87	.81	.78	.67	.76	.69		.75	.72	.82
표준화 α	.96	.96	.88	.87	.81	.78	.66	.77	.71		.75	.73	.82

a. 괄호 안의 수치는 문항수임.

b. 동일한 성질(반대어)의 문항들이어서 α 가 계산되지 않았음.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고, 나머지 요인들은 대체로 .7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몇 개의 배경변인들과 요인점수들 간의 관계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판단들의 요인들에 관련있을 것으로 여겨진 몇 개의 변인들의 실제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다. 각 요인의 총점들을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몇 개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삼아서 일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고, 유의한 관련을 나타낸 변인들을 중심으로 각 변량분석의 F치들과 하위 집단들 간의 차이검증(Duncan의 범위검증)의 결과들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남자는 여자보다 3요인(신체매력), 10요인(검소함) 및 11요인(예술성)에서 더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01$). 여자는 남자보다 1요인(자원), 4요인(부정적 성품), 5요인(개성 없음), 8요인(유사성 없음), 9요인(사교성) 및 13요인(미래 대비능력)에서 더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4요인은 $p<.05$,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p<.001$ 임). 그리고 2요인(긍정적 성품), 6요인(개인적 착실성),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 및 12요인(상호 매력)의 요인점수들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

학년 1요인(자원; $p<.001$)과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 $p<.01$)에서 학년간 차이가 유의했다. 1요인(자원)에서 1학년이 2, 3 및 4학년보다 더 낮은 요인점수를 보였으며(각각 $p<.05$),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에서 1학년이 3학년 및 4학년보다 더 낮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연령 1요인(자원; $p<.001$), 3요인(신체매력; $p<.001$),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 $p<.01$) 및 10요인(검소함;

$p<.05$)에서 연령집단들 간의 차이가 유의했다. 1요인(자원)에서 23세 이상, 17 - 19세 및 20 - 22세 집단들의 순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3요인(신체매력)에서 23세 이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에서 17 - 19세 집단이 20 - 22세 집단 그리고 23세 이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10요인(검소함)에서 23세 이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종교 1요인(자원; $p<.01$), 3요인(신체매력; $p<.01$) 및 6요인(개인적 착실성; $p<.001$)에서 종교집단들 간에 차이가 유의했다. 1요인과 3요인에서 종교집단들 간의 차이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며, 6요인에서 개신교집단이 종교없음집단과 가톨릭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신체매력도 1요인(자원; $p<.05$), 2요인(긍정적 성품; $p<.001$), 3요인(신체매력; $p<.001$), 5요인(개성 없음; $p<.05$) 및 9요인(사교성; $p<.001$)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했는데, 하위집단들 간의 차이가 유의한 1요인, 2요인, 3요인 및 9요인 모두에서 자신을 “매우 매력없다”고 지각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평정치를 보였다(각각 $p<.05$).

결혼상대로서의 자기평가 1요인(자원; $p<.001$), 2요인(긍정적 성품; $p<.001$), 3요인(신체매력; $p<.001$), 4요인(부정적 성품; $p<.01$), 9요인(사교성; $p<.001$) 및 12요인(상호 매력; $p<.05$)에서 자기평가집단들 간에 차이가 유의했는데, 위의 자신의 신체매력도 지각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나쁘다”집단이 1요인, 3요인 및

표 6. 선정된 배경변인별 결혼상태의 특장들의 비람적스러움의 요인점수들의 평균치와 F비

성별	비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남자	219	F=237.93***	F=2.19	F=98.15***	F=4.10*	F=28.05***	F=3.07	F=1.98	F=14.46***	F=13.14***	F=19.44***	F=16.56***	F=1.71	F=17.50***
여자	274	5.12a	6.20	5.49a	6.27a	5.29a	4.86	5.54	6.18a	5.36a	5.81a	5.16a	6.77	5.90a
		5.80b	6.28	4.90b	6.37b	5.62b	4.74	5.64	6.39b	5.57b	5.37b	4.81b	6.83	6.32b
학년		F=9.94***	F=.94	F=1.89	F=1.67	F=1.54	F=.96	F=4.09**	F=1.62	F=2.36	F=.18	F=.49	F=.13	F=2.10
1	116	5.27a	6.17	5.29	6.26	5.38	4.71	5.40a	6.24	5.34a	5.60	5.03	6.81	5.93a
2	190	5.63b	6.27	5.11	6.31	5.52	4.86	5.60ab	6.36	5.50ab	5.52	4.92	6.81	6.12ab
3	121	5.53b	6.25	5.11	6.32	5.53	4.79	5.73b	6.32	5.48ab	5.60	5.01	6.78	6.26b
4	66	5.50b	6.24	5.21	6.33	5.40	4.74	5.68b	6.20	5.61b	5.58	4.90	6.82	6.29b
연령		F=19.16***	F=.05	F=8.01***	F=1.30	F=.93	F=.52	F=5.95**	F=2.23	F=1.11	F=4.42*	F=2.26	F=.56	F=.12
17 - 19	117	5.44a	6.23	5.19a	6.26	5.47	4.78	5.39a	6.30	5.42	5.52a	4.95	6.84	6.12
20 - 22	268	5.64b	6.25	5.06a	6.34	5.51	4.77	5.65b	6.34	5.51	5.47a	4.91	6.79	6.15
23이상	108	5.25c	6.24	5.39b	6.36	5.40	4.86	5.70b	6.19	5.44	5.84b	5.14	6.80	6.09
종교		F=3.34**	F=1.97	F=4.08**	F=.99	F=1.19	F=28.94***	F=1.38	F=.75	F=1.67	F=1.46	F=1.25	F=.56	F=.54
없음	181	5.44a	6.18	5.17	6.31	5.44	4.44a	5.62a	6.25	5.47	5.45	4.93	6.80	6.20
개신교	160	5.48a	6.23	5.10	6.29	5.48	5.25b	5.51a	6.31	5.44	5.55	4.96	6.77	6.03
가톨릭	74	5.70ab	6.35	5.01	6.37	5.61	4.68a	5.65a	6.38	5.63	5.62	4.85	6.86	6.12
불교	75	5.50a	6.31	5.45	5.41	5.39	4.78ab	5.64a	6.32	5.41	5.81	5.16	6.84	6.17
기타	3	6.02b	6.60	5.13	6.14	5.72	4.37a	5.33b	6.47	5.87	5.67	5.44	6.78	6.33
신재배력도		F=3.16*	F=5.52***	F=7.09***	F=2.68*	F=3.23*	F=.32	F=1.67	F=.13	F=4.85***	F=.13	F=.91	F=.39	F=.67
매우 매력있다	35	5.58a	6.40a	5.55a	6.41	5.73	5.00a	5.68	6.29	5.85a	5.63	4.84	6.74	6.17
나소 매력있다	188	5.59a	6.30a	5.28a	6.41	5.55	4.81ab	5.69	6.29	5.48a	5.55	5.06	6.82	6.19
보통이다	232	5.43a	6.20a	5.06a	6.26	5.39	4.76ab	5.53	6.32	5.44a	5.57	4.91	6.81	6.09
나소 매력없다	36	5.46a	6.16a	4.96a	6.29	5.34	4.74ab	5.44	6.25	5.37a	5.53	4.94	6.77	6.11
매우 매력없다	2	4.66b	4.88b	4.05b	6.17	5.83	4.10b	5.25	6.30	4.50b	6.00	5.33	6.50	5.00
결혼상태로서의 자기평가		F=4.74***	F=9.35***	F=6.12***	F=3.45**	F=2.38	F=1.92	F=1.28	F=.86	F=3.73**	F=.38	F=1.06	F=3.06*	F=1.15
매우 좋다	58	5.56a	6.39a	5.40a	6.43	5.62	4.95a	5.62	6.30	5.66a	5.55	5.13	6.68	6.05ab
나소 좋은 편이다	231	5.60a	6.33a	5.25a	6.39	5.53	4.83a	5.67	6.35	5.52a	5.59	5.00	6.88	6.23b
보통이다	176	5.38a	6.12a	5.01a	6.23	5.36	4.72a	5.52	6.23	5.40a	5.51	4.89	6.75	6.06ab
나소 나쁜 편이다	26	5.46a	6.08a	5.01a	6.20	5.41	4.59a	5.45	6.27	5.35a	5.73	4.78	6.72	6.04ab
매우 나쁘다	2	4.66b	4.88a	4.05b	6.17	5.83	4.10b	5.25	6.30	4.50b	6.00	5.33	6.50	5.00a

표 6. 계 속

변 인		요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총 형제수		F=1.05	F=2.06	F=1.33	F=2.76*	F=2.03	F=1.50	F=2.64*	F=1.08	F=1.35	F=1.05	F=2.24	F=2.22	F=1.91
1	22	5.47ab	6.53a	5.37b	6.55b	5.75b	5.00b	5.97a	6.44b	5.63b	6.00b	5.47b	6.88	6.45
2	265	5.50ab	6.24b	5.13ab	6.29a	5.45ab	4.82ab	5.60b	6.30b	5.48ab	5.55ab	4.88a	6.80	6.03
3	153	5.52ab	6.24b	5.22ab	6.39ab	5.49ab	4.75ab	5.62b	6.31ab	5.47ab	5.57ab	5.01ab	6.78	6.29
4	32	5.28b	6.20b	5.17ab	6.22a	5.57b	4.83ab	5.39b	6.29b	5.58b	5.47ab	5.00ab	6.83	5.97
5이상	21	5.51a	6.11b	5.16a	6.19a	5.18a	4.46a	5.32b	6.06a	5.23a	5.38a	5.13ab	6.83	6.13
출생순위		F=1.27	F=1.04	F=2.39	F=2.03	F=1.98	F=1.40	F=2.11	F=.69	F=1.79	F=2.71*	F=1.25	F=.25	F=.76
1	242	5.48	6.25ab	5.13ab	6.30ab	5.43ab	4.84	5.65a	6.32	5.43	5.70	4.91	6.81	6.10
2	155	5.57	6.24ab	5.17ab	6.35ab	5.50ab	4.71	5.59a	6.27	5.55	5.39	4.96	6.78	6.11
3	63	5.51	6.31b	5.37b	6.44b	5.64b	4.85	5.58a	6.34	5.55	5.54	5.10	6.84	6.33
4이상	33	5.37	6.11a	5.02a	6.20a	5.33a	4.65	5.60b	6.30	5.35	5.45	5.19	6.81	6.06
경제수준		F=3.02*	F=1.19	F=2.63*	F=.19	F=1.36	F=.54	F=1.89	F=1.21	F=2.37	F=.61	F=.68	F=.71	F=.24
상류	7	5.56	6.57b	5.83b	6.27	5.71	4.67	5.54	5.89	5.66	5.00	4.95	6.90	6.43
중상류	139	5.65	6.28ab	5.25a	6.34	5.56	4.82	5.72	6.29	5.57	5.52	4.91	6.84	6.10
중류	295	5.45	6.23ab	5.12a	6.32	5.45	4.81	5.58	6.33	5.46	5.59	5.96	6.80	6.12
중하류	44	5.41	6.17a	5.13a	6.33	5.32	4.66	5.39	6.22	5.27	5.64	5.08	6.77	6.23
하류	8	5.53	6.14a	4.82a	6.19	5.40	4.60	5.41	6.18	5.28	5.50	5.42	6.58	6.25
데이트 관계의 유무		F=.62	F=2.32	F=3.62	F=1.41	F=.34	F=.12	F=.67	F=.00	F=.64	F=.80	F=.06	F=.50	F=.22
있음	190	5.53	6.29	5.24	6.36	5.50	4.81	5.64	6.30	5.51	5.51	4.91	6.83	6.17
없음	302	5.49	6.22	5.11	6.30	5.46	4.78	5.58	6.30	5.46	5.60	4.97	6.79	6.12
데이트 상대의 숫자		F=1.25	F=.88	F=8.78***	F=.71	F=1.01	F=1.05	F=1.04	F=1.12	F=1.65	F=1.40	F=1.75	F=.75	F=.84
0명	105	5.39	6.16	4.91a	6.34	5.41	4.91	5.48	6.34	5.45a	5.51	5.05	6.76	6.12
1 - 2명	195	5.50	6.27	5.14ab	6.31	5.50	4.80	5.61	6.35	5.47a	5.69	4.86	6.83	6.18
3 - 4명	115	5.55	6.23	5.16ab	6.31	5.47	4.72	5.59	6.22	5.45a	5.48	4.91	6.79	6.00
5 - 6명	28	5.56	6.25	5.65c	6.25	5.50	4.74	5.67	6.16	5.51a	5.21	4.18	6.73	5.96
7 - 8명	21	5.59	6.28	5.43bc	6.41	5.27	4.81	5.69	6.21	5.36a	5.43	5.14	6.95	6.33
9명이상	29	5.61	6.36	5.62c	6.46	5.66	4.59	5.80	6.34	5.79b	5.66	5.29	6.80	6.34

* $p<.05$, ** $p<.01$, *** $p<.001$. a, b, c의 부호가 다른 것은 차이가 $p<.05$ 수준의 유의있음임.

9요인의 모두에서 나머지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요인점수를 보였다(각각 $p<.05$).

기타 변인들 형제 수, 출생순위, 가정 경제수준, 데이트관계의 유무 및 지금까지의 데이트상대의 숫자의 변인들에 따른 요인점수들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형제 수는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했는데($p<.05$), 1명 집단이 나머지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출생순위는 요인점수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 경제수준은 3요인(신체매력)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했는데($p<.05$), 상류집단($N=7$)이 나머지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현재의 데이트관계의 유무는 요인점수들에서 집단간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데이트 상대의 숫자는 3요인(신체매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데이트 상대가 없었다는 집단($N=105$)이 1-2명 집단, 3-4명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5-6명, 7-8명 및 9명 이상의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요인점수를 보였으며, 0명에서 3-4명까지의 3개의 집단들보다 5-6명과 9명 이상의 집단들이 유의하게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각각 $p<.05$).

논 의

235개의 결혼상대의 정적 및 부정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들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13개 요인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수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 있는 결과이다. 즉, 사용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숫자가 비교적 많았던 대표적 연구들(예, Buss와 Barnes, 1986; 신철균, 1997)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의 내용들도 이전 연구들과 매우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설명변량을 차지한 자원(17.2%)요인과는 달리, Buss와 Barnes(1986)의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은 친절성-매력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별개의 요인들로서 나타난 신체매력, 부정적 성품, 부정적 자기중심성, 유사성 없음, 겸손함, 상호 매력 및 미래 대비능력의 요인들은 Buss와 Barnes(1986)의 요인들

에서는 없었으며, 개성 없음, 개인적 착실성, 및 사교성은 Buss와 Barnes의 요인들과 부분적으로 일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들은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인 Buss와 Barnes(1986)의 요인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 있는 연구결과들은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들의 내용과 숫자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의 결과들은 분석에 투입된 내용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235개의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징들이 사용된 반면에, Buss와 Barnes(1986)의 연구에서는 76개의 주로 긍정적 특징들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차이 있는 요인들을 내놓은 원인이 된 것 같다.

두 번째의 원인으로서는 고려될 수 있는 문화적 요인도 차이 있는 요인들에 기여했을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으로서 나타난 자원요인은 Buss와 Barnes(1986)의 연구에서 우세한 요인으로서 나타나지 않았고, Buss와 Barnes의 연구에서 첫 번째 요인으로서 나타난 친절성-배려성요인은 본 연구에서 두 번째요인, 즉 긍정적 성품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의 우선순위와 우세성은 아마 문화차이에 기인되었을 수도 있다. 즉, 한국인들이 결혼상대의 특징들로서 자원요인(즉, 직업적 및 경제적 자원들, 일반 능력, 지적능력, 학력, 가정배경, 등)을 더 중시하고 미국인들이 친절성과 배려성요인(즉 성품에 관련된 특징들)을 더 중시하는 데에 기인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동일한 특징들에 대한 문화비교연구를 통해서 진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요인들 간의 전반적 바람직스러움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즉, 각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들을 살펴본 결과에서, 최상위와 최하위의 각각 20개 특징들의 내용들은 상호 매력 요인에 관련된 특징들과 긍정적 성품요인에 관련된 특징들(20개 중에서 18개)이 가장 높은 평정치를 받았고, 가장 낮은 평정치를 받은 20개 중에서 12개의 상기의 특징들이 가장 낮은 평정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상대의 바람직스러움에 관련된 요인들

의 “상대적” 바람직스러움 상에서의 차이를 나타내 준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평정치들에 대해서 성차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연구들과 이론들에서 중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235개의 특징들 중에서 73개(31%)에 대해 남녀차이가 없었고, 91개(39%)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들을 보였고, 71개(30%)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들을 보였다. 따라서, 특성들의 단순한 숫자의 측면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관대한(또는 긍정적인) 평정치들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중간(즉, 4.0) 이상의 평균 평정치들을 가진 특징들과 중간 이하의 평정치들을 가진 특징들의 숫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특징들(115개)에서, 35개(30%)에 대해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24개(21%)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고, 56개(49%)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 특징(120개)에서, 38개(32%)에 대해 남녀 차이가 없었고, 67개(56%)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고, 단지 15개(12%)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특징들에 대해 더 민감한 변별을 하고 있고, 이는 특징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이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 실제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평정치들의 13개 요인들의 각각에 대한 남녀차이의 분석은 남녀차이의 더욱 상세한 양상을 드러내 주었다. 즉, 특징 요인들에서 2요인(긍정적 성품), 6요인(개인적 착실성), 7요인(부정적 자기중심성) 및 12요인(상호 매력)에서는 남녀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3요인(신체매력), 10요인(검소함) 및 11요인(예술성)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고, 1요인(자원), 4요인(부정적 성품), 5요인(개성 없음), 8요인(유사성 없음), 9요인(사교성) 및 13요인(미래 대비능력)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징들에 관련된 특징들을 나타내 주는데, 이전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되었다(예; Buss & Barnes, 1986).

연구 2.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배우자선택의 선호특징들에 관한 연구는 그러한 특징들이 실제로 배우자선택시에 고려되거나 선호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특징들이 사람들의 배우자선택에 직접 영향주는지의 의문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취급되어 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결혼상대의 긍정적 특징들과 부정적 특징들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직접 영향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이론적 뒷받침은 배우자선택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상대의 특징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해 영향주는 양식에 있어서 기대-가치이론이 유용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대-가치이론의 측면에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은 각각 선호의 가(valence)들을 가지며, 특정의 상대는 이들 각 특징을 소유하고 있을 확률, 즉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가를 갖는 특징들을 많이 소유하고, 이것들을 소유할 것으로 높은 기대들을 지각 받는 사람은 배우자선택시에 더 많은 선호를 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대의 특징들을 긍정적, 중립적 및 부정적 범주들로 구분해서 특성들의 세트(조)를 만들고, 이것들을 소지한 가상적 인물에 대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기대-가치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대치를 일정하게 통제하고서 가치(valence)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기본 가설은 긍정적 특징들과 중립적 특징들 및 부정적 특징들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직선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증하는 데에 더해, 본 연구는 성별효과와 특성들의 숫자, 즉 조크기(set size)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성별효과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선택에서 더 선택적이고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배우자선택에 관한 진화모형(Trivers, 1985)의 가설을 사용하였다. 즉, 특성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에 따른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의 효과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적은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배우자선택시에 사람들은 단일한 특징보다 다수의 특징들을 고려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숫자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상형성에 관한 조크기의 영향은 이미 Anderson (1982)에 의해서 평균모형과 가산모형으로서 제시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들 모형에 대한 차재호 (1997)의 평론과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을 직접 비교해서 연구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고, 단지 밀접한 관계들을 가질 의도에 관련된 바람직스러움상에서 차이 있는 특징들의 조크기의 효과를 제시해서 두 모형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성신여대(여자 156명), 성균

관대(남자 171명과 여자 50명), 경희대(남자 15명) 및 호서대(남자 75명)의 총 467명으로서, 주로 심리학개론 과목의 수강생들이었다. 참가자들은 남자가 261명(55.8%)이고 여자가 206명(44.1%)이었고, 1학년이 174명(37.3%), 2학년이 111명(23.8%), 3학년이 114명(24.4%) 및 4학년이 68명(14.6%)이었다. 참가자들의 연령범위는 17세에서 31세까지이었으며 평균치는 21.71세(표준편차=2.59세)이었다. 참가자들은 대다수(99.4%)가 미혼이었으며, 과거 데이트상대자 수의 평균치는 4.09명(표준편차=1.82명)이었다. 현재 데이트관계가 없는 학생들은 본 연구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데이트관계가 있었던 피험자들 중에서 현재 데이트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280명(60.0%)이었고, 현재 데이트관계가 없으나 과거 데이트관계가 있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187명(40.0%)이었다.

도구 및 절차

이성상대의 특징들의 긍정성 - 부정성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연구 1에서 얻어진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에 관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는 매우 긍정적 특징들, 중립적 특징들 및 매우 부정적 특징들의 세 개의 범주들로 구분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특징들과 그것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전체 평균 평정치들은 표 7과 같다. 세 개의 범주들에 속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은 유사한 평균 평정치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표 7. 실험에 사용된 결혼상대의 특징들과 바람직스러움의 전체 평균 평정치들

긍정적 특징들	평균치	중립적 특징들	평균치	부정적 특징들	평균치
1. 자상함	6.32	1. 자기희생적임	4.58	1. 공통의 관심사가 없음	1.75
2. 가정분위기가 좋음	6.31	2. 이타적임	4.20	2. 화를 잘 냄	1.72
3. 나를 위해 줌	6.30	3. 술을 마심	4.14	3. 정서적 안정성이 없음	1.71
4. 사려성 있음	6.30	4. 출신지역이 다름	3.83	4. 자기중심적임	1.70
5. 안내력이 있음	6.29	5. 전통적임	3.78	5. 장래성 없음	1.70
6. 센스(분별력)있음	6.28	6. 종교가 없음	3.67	6. 마음이 좁음	1.69
7. 서로 성격이 맞음	6.25	7. 말 수가 많음	3.46	7. 성실하지 않음	1.69
전체 특징들의 평균치	6.29	전체 특징들의 평균치	3.95	전체 특징들의 평균치	1.71
3, 4 및 5번 특징들의 평균치	6.30	3, 4 및 5번 특징들의 평균치	3.92	3, 4 및 5번 특징들의 평균치	1.70

비교적 동간적으로 평균치 차이들(2.20~2.30)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조크기(set size)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개의 바람직스러움의 범주들 내에서 각각 7개의 특징들과 3개의 특징들의 조들이 사용되었다. 7개의 특징들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3개의 특징들은 각각의 7개의 조에서 중간에 속한 3, 4 및 5번의 특징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결혼상대의 특징들은 긍정적 특징들, 중립적 특징들 및 부정적 특징들의 순으로 제시되었고 따라서 긍정적 - 부정적 특징들의 제시순서는 통제되지 않았다. 7개 특징들의 조건과 3개의 특징들의 조건은 실험에서 제시된 두 종류의 질문지의 무작위적 배부에 의해 참가자들의 조건배정이 통제되었다.

따라서, 실험설계는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긍정성(3) × 조크기(2) 및 성별(2)의 요인설계가 사용되었으며, 결혼상대의 특징들은 집단내 변인으로서 그리고 조크기와 성별은 각각 집단간 변인들로서 취급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이 이성과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성상대의 특징을 읽고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는 당신의 의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왼쪽 칸에는 어떤 “가상적인” 이성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러한 특징들을 지닌 이성상대에 대해 당신이 ①데이트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와 ②그 이성상대와 결혼하려는 의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의사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숫자의 칸 위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종속변인은 제시된 특징들을 가진 인물에 대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하고 싶은 의도가 측정되었다. 각각의 실험조건들에서 참가자들은 제시된 특징들을 가진 어떤 이성에 대해 “(1)당신이 데이트관계를 갖고 싶은 의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2)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의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의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1)~중간(보통)(4)~매우 많다(7)에 이르는 7점 척도 상에서 반응하였다.

결과 및 논의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조크기 및 성별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조건별 평균치가 계산되었고(표 8과 표 9), 평균치들에 대한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표 10과 표 11).

(1)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의 영향은 유의하였다, $F(2,465)=1853.31$, $p<.001$.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의 평균치들은 긍정적 특징들($\bar{X}=6.14$), 중립적 특징들($\bar{X}=3.77$) 및 부정적 특징들($\bar{X}=1.65$)의 순으로 나타나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일차적으로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영향준다는 것을 나타냈다.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성별효과도 유의했다, $F(1,465)=90.56$, $p<.001$. 전체 특징들에 대한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는 남자($\bar{X}=4.17$)가 여자($\bar{X}=3.54$)보다 더 높았다.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특징들의 조크기(즉, 3개와 7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표 8. 결혼상대의 특성들의 바람직스러움 정도, 성별 및 조크기에 따른 데이트관계의 의도점수들의 평균치

성별	조크기	특성들의 바람직스러움 정도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남자	3개	6.14	4.39	2.39
	7개	6.39	4.27	1.56
여자	3개	5.79	3.11	1.55
	7개	6.28	3.36	1.18

표 9. 결혼상대의 특성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 성별 및 조크기에 따른 결혼의도점수들의 평균치

성별	조크기	특성들의 바람직스러움 정도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남자	3개	6.05	3.69	1.43
	7개	6.25	3.55	1.16
여자	3개	5.54	2.46	1.15
	7개	6.05	2.60	1.08

표 10.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정도, 성별 및 조크기의 영향을 변량분석 요약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치
성별(A)	140.54	1	140.54	90.76***
조크기(B)	1.01	1	1.01	.65
A×B	11.10	1	11.10	7.17***
오차	716.95	463	1.55	
특성의 바람직스러움(C)	4550.57	2	2275.29	1853.31***
A×C	42.69	2	21.34	17.38***
B×C	55.26	2	27.63	22.51***
A×B×C	.62	2	.31	.25
오차	1136.84	926	1.23	

** $p<.01$, *** $p<.001$

표 11. 결혼할 의도에 대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정도, 성별 및 조크기의 영향을 변량분석 요약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치
성별(A)	100.61	1	100.61	65.21***
조크기(B)	1.23	1	1.23	.80
A×B	6.27	1	6.27	4.06*
오차	714.34	463	1.54	
특성의 바람직스러움(C)	5229.99	2	2614.99	2289.20***
A×C	52.89	2	26.44	23.15***
B×C	16.50	2	8.25	7.22***
A×B×C	.24	2	.12	.11
오차	1057.79	926	1.14	

** $p<.01$, *** $p<.001$

다(3개조의 $\bar{X}=3.89$, 7개조의 $\bar{X}=3.84$).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 조크기 및 성별의 몇 개의 상호작용효과들이 유의했지만, 주변인들의 효과로부터 큰 이탈을 보이지는 않았다.

(2) 결혼할 의도

결혼할 의도에 대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의 영향은 유의하였다.

$F(2,465)=2289.20$, $p<.001$. 결혼할 의도의 평균치들은 긍정적 특징들($\bar{X}=5.96$), 중립적 특징들($\bar{X}=3.06$) 및 부정적 특징들($\bar{X}=1.20$)의 순으로 나타내서 앞에서 제시된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평균치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일차적으로 결혼할 의도에도 또한 영향준다는 것을 나타냈다.

결혼할 의도에 대한 성별효과도 유의했다, $F(1,465)=65.21$, $p<.001$. 전체 특징들에 대한 결혼할 의도는 남자($\bar{X}=3.68$)가 여자($\bar{X}=3.14$)보다 더 높았으며,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성별효과와 동일한 양상의 것이다. 결혼할 의도에 대한 특징들의 조크기(즉, 3개와 7개)의 효과는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에 대한 효과와 마찬가지로 유의치 않았다(3개조의 $\bar{X}=3.39$, 7개조의 $\bar{X}=3.45$).

결혼할 의도에 대한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 조크기 및 성별의 몇 개의 상호작용효과들이 유의했지만, 주변인들의 효과로부터 큰 이탈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에 따른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의 평균치들을 비교하면,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긍정적 조건들($\bar{X}=$

6.28 대 5.96), 중성적 조건들($\bar{X}=3.77$ 대 3.06) 및 부정적 특징들($\bar{X}=1.65$ 대 1.20)에서 모두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점수가 결혼할 의도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개입(또는 몰입)의 정도가 낮은 경우, 즉 데이트관계보다 개입의 정도가 높은 경우, 즉 결혼에서 더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의 평균치들을 비교하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남자의 $\bar{X}=4.17$, 여자의 $\bar{X}=3.68$)와 결혼할 의도(남자의 $\bar{X}=3.54$, 여자의 $\bar{X}=3.14$)의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모든 개입(또는 몰입)의 정도의 조건들에서 더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3. 결혼상대의 특징들과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애정의 관계

본 연구는 연구2에서 취급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것에 첨가해서, 특징들의 “실제의” 데이트관계의 성질들(관계의 만족, 몰입 및 상대방에 대한 애정)에 관련있는지를 상관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2에서와 같이, 기대-가치이론의 개념이 본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즉,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의 면에서 데이트상대가 얼마나 좋거나 나쁜지를 평가해서, 이 평가치가 데이트관계의 성질들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확률이나 기대치가 관계의 성질들에 대해 갖는 상관에 관한 증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기대-가치이론의 가, 즉 *valence*가 통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가설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면에서 좋다고 평가될수록 데이트관계에 대한 만족, 개입 및 상대에 대한 애정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즉, 두 변인간의 정적 관계의 가설임).

결혼상대의 특징들과 관계의 성질들에 관한 상관자료들은 특징들에 관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따라서 이

러한 특징들이 지금까지 연구된 사회교환변인들(예;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계의 성질들에 어느 정도 관련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상대의 특징들, 사회교환변인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 데이트관계의 성질에 관련된 것으로 취급되어 온 기타의 변인들(의사소통의 원할성, 본인과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 규범적 지지, 본인과 파트너의 신체매력)을 모두 취급함으로써 데이트관계의 성질들과 각 변인들의 독립적 및 상대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서 얻어지는 현재의 관계와 과거의(즉, 파탄된)관계에 관한 정보는 진행중인 관계와 파탄된 관계의 특징들이나 관련변인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연구법을 통해서 관계의 성질에 관련된 변인들(예; 보수와 부담, 대안관계의 질)의 관련성을 검증하거나, 종단연구법을 통해서 관계의 성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검증해 왔다. 본 연구의 현재와 과거의 데이트관계들에 관한 비교자료에서 제삼의 연구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밀접한 관계의 성질들에 관해서 성차의 변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 취급된 여러 변인들의 관련성들과 각 변인들의 성차에 관한 정보는 이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연구2의 참가자들로서, 남자가 261명이고, 여자가 206명이었다(전체=467명임). 결혼상대의 특징들과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애정의 관계는 현재 데이트관계를 가진 사람들($N=280$ 명)과 과거 데이트관계를 가졌던 사람들($N=187$ 명)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1)결혼상대의 특징들과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애정간의 관계를 주로 알아보고자 하였고, (2)부수적으로, 사회교환이론에서 취급된 변

인들과 기타 몇 개의 관심 있는 변인들과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애정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3)결혼 상대의 특징들과 사회교환변인들 및 기타의 관심 있는 변인들의 상대적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종속변인으로서의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애정이 설정되었고, 독립변인으로서의 결혼상대의 특징들에 관련된 12개 요인, 7개의 사회교환변인들, 그리고 6개의 관심 있는 변인들이 설정되었으며, 각 변인들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좋음 - 나쁨의 측정: 현재와 과거의 데이트상대에 대해 연구1에서 발견된 13개 요인들의 좋음 - 나쁨의 정도를 평가시키기 위해서,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 중에서 요인부하량이 큰 39개의 문항들이 선정되었으며, 측정을 위해 기술어가 약간 변경되었다. 그리고 요인들 중에서 4요인(부정적 성품)은 2요인(긍정적 성품)과 반대되는 문항들이어서 측정에서 제외되었다. 각 요인에 속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1) 자원요인(11개 문항): 직업을 가질 능력, 장래성, 경제적 능력(또는 돈벌이 능력), 일반적 생활능력, 성취욕(또는 야망), 지적 수준, 학력(또는 학교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체격, 키(신장), 나에 비한 여러 개인적 조건들.
- (2) 긍정적 성품요인(5문항): 자상함, 친절성과 이해성, 성실성, 상대방에 대한 배려성, 정직성.
- (3) 신체매력요인(4문항): 외모의 생김새, 얼굴의 생김새, 외모를 가꾸는 것, 성적 매력성.
- (4) 개성요인(2문항): 개성, 창의성.
- (5) 개인적 착실성요인(4문항): 종교성, 술을 마심, 담배를 피움, 순결함(다른 이성과의 성경험이 없음).
- (6) 부정적 자기중심성요인(2문항): 자기중심성, 이기성.
- (7) 유사성요인(2문항): 나와서 취미(또는 기호)의 유사성, 나와서 사고방식의 유사성.
- (8) 사교성요인(2문항): 외향성, 사교성.
- (9) 검소함요인(1문항): 검소함.
- (10) 예술성요인(3문항): 예술적임, 미술을 잘함, 음악을

을 잘함.

- (11) 상호 매력요인(2문항): 서로 좋아함, 서로 사랑함.
- (12) 미래 대비능력요인(1문항): 위기의 해결능력.

질문지에서 39개의 특징들은 무작위적 순서로,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 동일한 순서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의 데이트상대의 각 특징들에 대한 판단은 각 특성에 대해 매우 나쁘다(1)에서 매우 좋다(7)에 이르는 7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척도점수의 기술은 매우, 상당히, 약간 및 중간(보통)이라는 기술어를 사용해서, 점수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했다.

2. 사회교환변인들의 측정: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 및 투자는 Rusbult, Johnson 및 Morrow(1986)가 사용했던 문항들에 의해 7점 척도로(예; 전혀 없다~매우 많다) 측정되었다(또한 홍대식, 1998 참조).

- (1) 보수(2문항): 관계에서 얻는 보수들의 많음과 없음.
- (2) 부담(2문항): 관계에서 얻는 부담들의 많음과 적음.
- (3) 대안관계의 질(3문항): 현재의 관계 이외의 대안이 되는 관계들의 질.
- (4) 투자(2문항): 관계 속에 투자한 정도.
- (5) 형평성(2문항): Felmlie, Sprecher 및 Bassin(1990)이 사용했던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형평성 지수는 형평성의 이탈 점수와 과잉 - 과소 이익의 두 가지로 계산되었다.
- (6) 비교수준(3문항): 홍대식(1998)의 연구에서 비교수준의 측정문항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Thibaut와 Kelley(1959)의 비교수준의 개념을 잘 측정할 문항이 만들어졌다. 3개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이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이전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성관계에 대한 관찰에 비추어 볼 때, 이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했습니까?”, “당신은 이전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관찰로부터, 이 관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이상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및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좋은 결과들을 얼마나 많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척도는 7점 척도가 사용되

었고, 전혀 없다(또는 매우 낮다), 중간 및 매우 많다(또는 매우 높다)로서 기술되었다.

3. 기타 관심있는 변인들의 측정: 선행연구(예; 홍대식, 1998)에서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애정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변인들이 측정되었다.

- (1) 의사소통의 원활성(2문항): “당신과 이 파트너는 대화를 얼마나 잘 진행합니까?”(전혀 잘 되지 않는다~매우 잘 된다)와 “당신은 대개 이 파트너와 서로 대화한 후에 어떤 기분을 느끼니까?”(매우 나쁘다~매우 좋다)의 문항들에 대해 각각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 (2) 본인의 의사전달능력(1문항): “당신은 자신의 의사 전달이나 대화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
- (3)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1문항): “당신은 이 파트너의 의사전달이나 대화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 됩니까?”(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
- (4) 규범적 지지(2문항): “당신의 가족들은 이 관계를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대합니까?”와 “당신의 친구 들은 이 관계를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대합니까?” (각각 매우 반대한다 - 매우 찬성한다).
- (5) 본인과 파트너의 신체매력: 각각 “당신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매력있다고 생각합니까?”와 “당신은 이 파트너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매력있다고 생각 됩니까?”(각각 전혀 매력없다~매우 매력있다)

4. 종속변인들의 측정: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개입이 측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애정(또는 사랑)이 측정되었다.

- (1) 데이트관계의 만족(4문항): Hendrick(1988)이 사용했던 7개의 문항들 중에서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일반적으로, 당신은 이 데이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 관계는 대개의 관계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이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합니까? 및 당신의 이 관계는 당신의 처음의 기대들과 어

느 정도 일치되었습니까?).

- (2) 데이트관계의 개입(4문항): Rusbult(1983)가 사용했던 4개의 문항들이 사용되었다(당신은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 관계가 가까운 장래에 끝날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및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애착을 느끼니까?).
- (3) 애정(10문항): Braiker와 Kelley(1979)의 애정척도에 대한 Feinlee, Sprecher 및 Bassin(1990)의 수정 판에 의해 측정되었다(예; 당신은 X와 함께 소중한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 왔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X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재고했다고 느낍니까?, 이 관계에서 당신은 X를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본 연구를 위해 상기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가 제작되었으며, 질문지는 주로 강의시간에 실시되었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관계의 성질들, 즉, 데이트관계의 만족, 개입 및 파트너에 대한 애정의 3개의 변인들과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 사회교환변인들 및 기타 변인들이 상호 상관되었으며, 이들 상관계수들이 관계만족, 개입 및 애정을 예측하기 위해서 회귀분석되었다(표 12, 13, 및 14 참조).

(1) 관계만족의 예측변인들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남녀 전체집단에서 개입, 애정, 신체매력(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 중의 하나임), 보수, 대안관계의 질, 의사소통의 원활성 및 규범적 지지의 7개의 변인들이었다. 남자집단에서 관계만족의 예측변인들은 보수, 대안관계의 질, 의사소통의 원활성 및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의 4개의 변인들이었다. 여자집단에서, 관계만족의 예측변인들은 애정, 긍정적 성품, 착실성 및 규범적 지지의 4개의 변인들이었다.

관계만족을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집단에 대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전혀 없었다. 또한 남자와

표 12. 현재의 데이트관계의 만족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와 의의도.

변 인	남자	여자	전체참가자
개입	.14	.10	.11*
애정	.10	.27*	.21**
자원	.07	-.08	.00
긍정적 성품	-.01	.28*	.12
신체매력	.17	.11	.18*
개성	.04	.02	.03
착실성	.07	-.18**	-.05
자기중심성	.11	-.08	.04
유사성	-.10	-.03	-.06
사교성	.06	-.03	.04
검소성	.00	-.01	-.04
예술성	.03	-.01	-.01
상호 매력	.04	.10	.07
미래 대비능력	-.03	.03	-.04
보수	.33**	.13	.18***
부담	-.06	-.09	-.07
대안관계 질	-.14*	-.04	-.09*
비교수준	-.04	-.09	-.04
투자	.04	-.01	-.05
과잉-과소 이익	-.07	-.04	-.04
형평이탈	.03	-.02	.00
의사소통의 원활성	.22**	.10	.15**
본인의 의사전달능력	-.08	.04	.00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	.17*	-.00	.10
규범적 지지	-.05	.24**	.11*
파트너의 신체매력	-.16	.01	-.06
본인의 신체매력	-.02	-.03	.03

* $p < .05$, ** $p < .01$, *** $p < .001$.

여자의 만족을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변인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데이트관계 만족의 예측변인들은 큰 성차를 보였다.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로서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신체매력요인(전체집단), 긍정적 성품과 착실성(여자집단)의 3개였다.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사회교환변인들은 보수(전체집단과 남자집단)와 대안관계의 질(전체집단과 남자집단)의 2개이었으며, 여자들의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사회교환변인들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사회교환이론들(Thibaut와 Kelley, 1959; Rusbult, 1981)은 부담과 투자의 변인들에서, 그리고 형평성의 변인들에서 지지

표 13. 데이트관계의 개입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와 의의도

변 인	남자	여자	전체참가자
관계만족	.21	.14	.17**
애정	.15	-.14	.06
자원	.06	.28**	.10
긍정적 성품	-.20	-.13	-.13
신체매력	-.17	.21	-.01
개성	-.09	-.02	-.01
착실성	-.05	.15	.01
자기중심성	.04	.01	.04
유사성	-.06	.02	-.04
사교성	-.09	-.01	-.07
검소성	.05	-.16	-.06
예술성	.05	-.04	.00
상호 매력	.25*	.31*	.20*
미래 대비능력	.11	.07	.06
보수	.06	.00	.08
부담	-.05	-.20*	-.14*
대안관계 질	-.07	-.11	-.08
비교수준	-.16	.06	-.07
투자	-.01	.25**	.15*
과잉-과소 이익	.11	.23**	.14*
형평이탈	-.04	-.02	-.06
의사소통의 원활성	.28**	-.08	.13
본인의 의사전달능력	-.17*	-.04	-.09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	-.01	-.01	-.04
규범적 지지	.14	.09	.15**
파트너의 신체매력	.06	-.15	-.05
본인의 신체매력	.08	-.03	.03

* $p < .05$, ** $p < .01$, *** $p < .001$.

받지 못했고, 특히 여자집단에서는 여러 변인들이 모두 지지 받지 못했다. 또한 사회교환이론들에서 개입을 예측하는 변인인 대안관계의 질이 전체집단과 남자집단에서 관계만족을 또한 예측함으로써 사회교환이론들이 지지 받지 못했다.

또한 사회교환이론들에서 직접 취급되지 않는 변인들인 의사소통의 원활성(전체집단과 남자집단),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남자집단) 및 규범적 지지(전체집단과 남자집단)가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결과는 여자집단에서 남자파트너의 착실성이 만족과 부정적 관련($\beta = -.18$)을 가진 것

표 14. 데이트상대에 대한 애정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와 의의도

변 인	남자	여자	전체참가자
관계만족	.07	.17*	.14**
개입	.07	-.06	.03
자원	.13	.04	.06
긍정적 성품	-.04	-.22*	-.07
신체매력	-.09	.11	.01
개성	-.01	-.08	-.06
착실성	.09	.06	.04
자기중심성	-.06	.12	-.01
유사성	-.03	.00	-.03
사교성	-.06	.00	-.02
검소성	.04	.06	.04
예술성	.12*	.00	.08
상호 매력	.37**	.59***	.43***
미래 대비능력	.07	.05	.04
보수	.03	.02	-.03
부담	.00	.00	.00
대안관계 질	-.06	-.02	-.04
비교수준	.11	.13*	.11**
투자	.40***	.30***	.37***
형평이탈	.03	.08	.05
과잉-과소 이익	.05	.04	.03
의사소통의 원활성	.07	-.02	.06
본인의 의사전달능력	.01	-.02	.01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	-.08	-.04	-.06
규범적 지지	-.06	-.04	-.03
파트너의 신체매력	.09	.00	.10
본인의 신체매력	-.10*	.02	-.04

이었다.

(2) 개입의 예측변인들

전체 집단의 개입변인은 만족, 상호 매력(결혼상대의 특징들 중의 하나임), 부담, 투자, 과잉 - 과소이익 및 규범적 지지의 6개 변인들에 의해 예측되었다. 남자 집단에서, 개입의 예측변인들은 상호 매력, 의사소통의 원활성 및 집단 본인의 의사전달능력의 3개의 변인들이었다. 여자집단에서, 개입의 예측변인들은 자원, 상호 매력, 부담, 투자 및 과잉 - 과소이익의 5개 변인들이었다.

전체집단, 남자집단 및 여자집단의 개입을 예측하는 변인은 상호매력 뿐이었다.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개입을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상호 매력의 변인

뿐이었다. 따라서 남녀의 관계개입은 한 변인만을 제외하고 상이한 변인들에 의해 예측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에 속하는 예측변인들은 상호 매력(3개의 집단들)과 자원(여자집단)의 2개의 요인이었다.

사회교환변인들 중에서, 부담, 투자 및 과잉 - 과소 이익이 전체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의 개입의 예측변인들이었으며, 남자집단의 개입을 예측하는 사회교환변인들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사회교환변인들은 관계 개입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뚜렷한 성차를 보였다. 사회교환변인들에 속하지 않는 규범적지지(전체집단)와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본인의 의사전달능력이 또한 개입의 예측변인들로서 나타났다.

(3) 애정의 예측변인들

애정은 관계만족과 개입과 아울러 여러 연구자들과 이론들의 관심이 되고 있음으로, 애정을 예측하는 변인들이 또한 분석되었다. 전체집단의 애정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관계만족, 상호 매력, 비교수준 및 투자의 4개이었다. 남자집단의 애정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예술성, 상호 매력, 투자 및 본인의 신체매력의 4개이었으며, 여자집단의 애정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관계만족, 긍정적 성품, 상호매력, 비교수준 및 투자의 4개이었다.

상호 매력과 투자의 변인들은 세 개의 집단 모두에서 애정의 예측변인들이었다. 따라서, 상호매력과 투자는 남자와 여자의 애정의 공통적 변인들이었다. 또한 이 변인들 이외에, 남자의 애정이 예술성, 본인의 신체매력에 의해 예측된 반면에, 여자의 애정은 관계만족, 긍정적 성품 및 비교수준의 변인들에 의해 예측되었다.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 중에서, 상호 매력(세 개의 집단들), 예술성(남자집단) 및 긍정적 성품(여자집단)이 애정을 예측하였다.

사회교환변인들 중에서, 관계만족(전체집단과 여자집단), 비교수준(전체집단과 여자집단), 투자(세 개의 집단들)가 애정의 예측변인들이었으며, 보수, 부담 및 형평성의 변인들은 애정의 예측변인들이 아니었다.

기타의 변인들로서, 의사소통의 원활성, 본인과 파

트너의 의사전달 능력, 규범적 지지 및 본인과 파트너의 신체매력의 변인들은 애정을 예측하지 못했다.

(4) 현재와 과거의 데이트관계 간의 차이

본 연구에 측정된 관계의 성질들, 결혼상대의 특징 요인들, 사회교환변인들 및 기타 변인들 상에서의 현재의 데이트관계와 과거의(파탄된) 데이트관계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진행중인 관계와 깨진 관계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와 과거의 데이트 관계들 간에 뚜렷한 차이들이 나타났다.

표 15. 데이트 관계에 관련된 결혼상대의 특징변인들, 사회 교환변인들 및 기타 변인들에서의 현재와 과거(파탄된) 데이트 관계들의 평균치와 차이

변 인 들	현재관계(N=280)	과거관계(N=187)
관계만족	5.43	4.43***
개입	4.88	2.93***
애정	5.59	4.90***
자원	5.20	4.77***
긍정적 성품	5.63	4.90***
신체매력	5.11	4.92
개성	4.94	4.63**
착실성	4.54	4.21***
자기중심성	4.78	4.29***
유사성	4.95	4.24***
사교성	5.28	5.06
검소성	4.75	4.24***
예술성	4.43	4.06***
상호매력	5.79	4.65***
미래 대비능력	5.23	4.58***
(전체평균)	5.09	4.62***
보수	5.35	4.64***
부담	3.83	4.55***
대안관계의 질	4.19	4.63***
비교수준	5.56	5.25***
투자	5.52	4.87
형평이탈	.11	-.20*
과잉-과소이익	1.15	1.30
의사소통의 원활성	5.59	4.80***
본인의 의사전달능력	4.99	4.72*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	5.38	4.67***
규범적 지지	4.78	4.06***
본인의 신체매력	4.83	4.59*
파트너의 신체매력	5.15	4.87*

* $p < .05$, ** $p < .05$, *** $p < .001$.

관계의 성질들(관계만족, 개입 및 애정) 모두에서 현재 관계는 과거의 관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에서도 신체매력과 사교성의 요인들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현재 관계가 과거의 관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교환변인들에서, 투자와 형평이탈의 변인들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현재와 과거의 관계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검토된 기타 변인들에서도 두 관계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데이트관계와 과거의(파탄된) 데이트관계는 많은 변인들에서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5) 현재의 데이트관계에 관련된 변인들의 성차

현재의 데이트관계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여러 예측 변인들 상에서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또한 성차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데이트관계와 과거의 데이트 관계 간의 차이보다는 덜 뚜렷하지만, 많은 변인들 상에서 성차가 있었다.

관계의 성질들의 면에서, 관계만족과 개입에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애정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결혼상대의 12개의 특징요인들 중에서 4개의 요인들, 즉 신체매력, 유사성, 예술성 및 미래 대비능력에서 성차가 있었다. 남자집단은 여자집단보다 신체매력과 예술성, 즉 여성적 특징들에서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으며, 여자집단은 남자집단보다 유사성과 미래대비능력의 특징들에서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다.

사회교환변인들 중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과소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정했다. 또한 기타의 변인들 중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본인의 의사전달능력, 규범적 지지 및 파트너의 신체매력에서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논 의

데이트관계의 성질들(관계만족, 개입 및 애정)에 관련 있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데이트관계의 이해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제공했다. 첫째로, 데이트관계의 성질들의 예측변인들이 남자와

표 16. 현재의 데이트관계에 관련된 결혼상대의 특징변인들, 사회교환변인들 및 기타 변인들에서의 남녀의 평균치와 차이

변 인 들	남자(N=147)	여자(N=133)
관계만족	5.49	5.37
개입	4.98	4.78
애정	5.69	5.48*
자원	5.18	5.23
긍정적 성품	5.54	5.73
신체매력	5.39	4.81***
개성	4.91	4.97
착실성	4.44	4.65
자기중심성	4.73	4.85
유사성	4.80	5.12*
사교성	5.20	5.38
검소성	4.84	4.65
예술성	4.61	4.24**
상호매력	5.79	5.79
미래 대비능력	5.00	5.47**
(전체평균)	(5.08)	(5.11)
보수	5.35	5.34
부담	3.87	3.79
대안관계의 질	4.24	4.14
비교수준	5.53	5.60
투자	5.66	5.35*
형평이탈	-.05	.30*
과잉-과소이익	1.15	1.15
의사소통의 원활성	5.55	5.64
본인의 의사전달능력	5.22	4.74***
파트너의 의사전달능력	5.29	5.47
규범적 지지	5.01	4.53**
본인의 신체매력	4.86	4.80
파트너의 신체매력	5.33	4.94**

* $p<.05$, ** $p<.05$, *** $p<.001$.

여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만족에서, 남자와 여자의 예측변인들이 완전히 차이 있었으며, 관계개입에서는 1개(상호매력)를 제외한 모든 예측변인들이 차이있었고, 애정에서는 2개(상호매력과 투자)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차이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남녀를 공통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인매력이나 관계의 발전(또는 해체)을 취급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남녀가 모두 동일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본적 가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들에 의해서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 분야의 이론들에서는 관계의 변인들에 관련된 성차의 요인들이나 특징들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될 것 같다.

둘째로, 사회교환이론들에서 취급하는 변인들(예: 보수와 부담) 이외의 변인들이 데이트관계의 성질들에 관련되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만족의 예측변인으로서 애정과 신체매력(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임)이 보수만큼 영향 있었으며, 사회교환변인들인 부담과 비교수준 및 형평성은 만족의 유의한 변인이 되지 못했다. 개입의 예측변인으로서 상호매력의 변인이 사회교환변인들인 만족, 투자 및 부담만큼 영향 있었으며, 사회교환변인들인 대안관계의 질과 보수는 개입의 유의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했다. 이 이외에는, 애정의 가장 유의한 예측변인은 투자로서 나타나서, 투자변인이 개입보다도 오히려 애정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상기와 같이, 관계의 성질을 예측하는 이론들(예: 사회교환이론들)에서 중요시하는 변인들은 제한된 예측력이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이론적 변인들 이외의 변인들이 오히려 더 큰 예측력이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래의 이론들에서 강조하는 변인들과 아울러 이론들에서 취급되지 않았거나 무시되어 온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데이트관계와 과거의(즉 파탄된) 데이트관계는 본 연구에서 취급된 거의 대부분의 변인들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들이 관계의 깨짐을 직접 예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즉, 상관적이고, 사후의 측정치들이라는 점에서), 데이트관계의 계속과 깨짐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 변인에 관한 자료는 지금까지의 여러 이론적 변인들과 본 연구에서 특별히 취급된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 및 기타의 관련변인들을 통합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취급된 여러 변인들 상에서의 남녀차들은 남녀의 데이트심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데이트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관계만족과 개입에서는 남녀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매력과 예술성과 같은 여성적 특징들에서 더 높은 평정치를 보였고, 여자는 남자보다 파트너에 대해 더 많은 유사성을 지각하고, 미래 대비능력이 더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녀가 데이트관계에서 상이한 관계측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관계에 관한 통합적 모형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총 합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또는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이들 요인과 아울러 몇 개의 사회교환변인들과 기타 관심있는 변인들이 관계의 성질들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발견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한다.

(1)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요인들

본 연구에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요인들로서 13개가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인 Buss와 Barnes(1986)의 발견과 기타 여러 연구자들의 발견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인들로서 발견된 자원요인, 긍정적 성품요인, 신체매력요인 등은 결혼상대를 고려할 때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두는 변인들과 매우 일치되는 것이어서, 선행연구들보다 더 큰 현실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연구된 배우자선택요인들의 성차와 문화차에 관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더 확장되어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선택에 관한 진화론적 접근들에서 제시된 배우자선택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경험적 자료에 기초된 본 연구의 발견들로서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배우자선택요인들은 또한 배우자선택의 개인차를 연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요인 이외에도, 학년, 연령, 종교, 개인의 신체매력도와 자기평가 등의 변인들이 결혼상대의 특징의 바람직스러움을 평정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배우자선택에서의 개인적 또는 인구학적 변인들의 관련성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들은 남녀관계나 구혼관계(courtship)의 발전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선택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상이한 요인들이 배우자선택에 관련있거나 영향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Murtstein(1971)의 이론은 관계의 초기에 외적 자극(예; 신체매력)이 중요하고, 중간단계에 가치의 유사성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역할의 조화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선택요인들 중의 극소수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여러 요인들(13개)은 배우자선택에 관한 이론들에서 다수의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앞으로, 배우자선택에 관한 이론들, 특히 단계이론들에서 이들 여러 요인들이 관계의 발전과 해체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 요인들, 사회교환변인들 및 기타 관심있는 변인들과 파트너와 관계를 가질 의도와 관계의 성질들 간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결혼상대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데이트관계를 가질 의도와 결혼할 의도에 직접 영향준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 또는 관계의 해체에서도 결혼상대의 특징들이 직접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들(특히 중단연구들)에서 이들 요인들의 영향을 더욱 증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데이트관계와 결혼의 의도에 영향중에 있어서 성별변인이 관련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연구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에 의해 일정하게 더 적은 영향을 받는데, 즉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이 분야의 전통적 발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발견은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상이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이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 분야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아마 그러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또는 규범적) 지지를 더욱 중시하는 것일 수 있다.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바람직스러움의 정도가 관계를 가질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에서, 특징들의 조크기(set size)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들이나 정보들의 조크기가 중점적 관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인을 상세하게 연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크기에 관한 자료는 사회심리학이론들 중에서 정보통합모형(Aderson, 1982)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조크기에 관한 본 연구의 자료는 앞으로 정보통합모형들 중의 평균모형과 가산모형을 비교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차재호, 1997 참조).

관계의 성질들(만족, 개입 및 애정)에 대한 결혼상대의 특징요인들, 사회교환변인들 및 기타 관심있는 몇 개의 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몇 가지 매우 흥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둘 만한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성질들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효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개입의 모두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정요인들이 크게 달랐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녀의 차이를 무시한 종래의 이성관계이론들에 대해 큰 시사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사회교환이론들에서는 남녀에 관계없이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 형평성 등이 관계의 성질들에 관련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은 관계의 성질들을 결정짓는 변인들이 남녀간에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냈다.

앞으로, 개인적 관계에 관한 이론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상이한 모형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의 연구들에서(특히, 사회교환이론들에서), 관계의 성질들로서 관계의 만족과 지속(또는 몰입)이 중점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애정에 관한 연구들은 애정의 내용들(또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제, 애정에 관한 연구들도 애정에 관련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될 같다. 예컨대,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애정의 주요 결정요인이나 관련요인이 투자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관계의 만족과 개입에 관한 이론들처럼, 애정에 관한 이론들도 애정을 결정짓는 사고, 인지 및 행동의 내적 변인들보다도 외적변인들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만 될 것이다. 부가적으로, 개념상으로 또는 조작적으로, 만족, 애정 및 개입이 정의되고 이론화되고 있지만,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현재의 데이트관계와 과거의 데이트관계가 대다수의 변인들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관계의 발전과 깨짐에 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대한가정학회지, 14(2), 86-100.
- 김경희(1994). 여대생의 성의식, 결혼관, 배우자선택,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목표대학교), 제7집, 69-83.
- 김은영(1995). 한림대학교 학생의 성의식과 태도,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한림대학교), 제7권, 28-54.
- 김정옥·김형섭(1994). 강릉대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관한 의식조사. 학생생활연구(강릉대

- 학교), 제13집, 65-99.
- 김혁곤(1984).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학생생활연구*(순천대학교), 제3집, 117-144.
- 서창원(1992). 충남대학교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대한 조사. *학생지도연구*(충남대학교), 제9집, 149-166.
- 성한기(1997). 연애와 결혼에 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5집, 225-259.
-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신철균(1997).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중요성: 중요한 특징들, 요인들 및 관련변인들. *인덕전문대학교 논문집*, 19, 189-212.
- 이기숙(1984). 여대생과 그 부모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 *학생생활연구*(부산여자대학교), 제4집, 97-124.
- 이수애(1995). 신세대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목포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소*(목포대학교), 제8집, 27-44.
- 조성경(1987). 문화 배경에 따른 국내의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한 차이. *학생지도연구*(송실대학교), 제3집, 35-59.
- 차재호(1997). 인상형성에서의 가산모델과 평균모델. *한국심리학회지*, 16, 139-161.
- 한덕웅(1985). *조직행동의 동기이론*. 서울: 법문사.
- 홍대식(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Aldous, N.(1973). Mechanisms of stalemate in conjoint marital therapy.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18, 191-197.
- Anderson, N. H.(1982). *Methods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NY: Academic Press.
- Aroz, D.(1974). Marital transference. *Journal of Family Counseling*, 2, 55-63.
- Atwood, J.(1993). *Attraction and attachment: Understanding styles of relationships*. In B. J. Brothers (Ed.) The Haworth Press, Inc.
- Benedek, T.(1959) Parenthood as a developmental phas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7, 374-389.
- Berscheid, E., & Hatfield (Walster), E.(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Blanck, A., & Blanck, G.(1968). *Marriage and personal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wen, M.(1961).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345-374.
- Bowen, M.(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345-374.
- Bowen, M.(1976).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Guerin (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ener Press.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iker, H. B., & Kelley, H. H.(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 L. Burge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p. 135-169). New York: Academic Press.
- Brown, R. A.(1994). Romantic love and the spouse selection criteria of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183-189.
- Burgess, E. W., & Wallin, P.(1953). *Engagement and marriage*. New York: Lippincott.
- Buss, D. & Barnes, M.(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61-377.
- Buss, D.(1985). Human mate selection. *American Scientist*, 73, 47-51.

- Buss, D.(1987).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s selection. In C. Crawford, M. Smith & D. Krebe (Eds.). *Sociobiology and psychology: Issues, goals and findings*. Hillsdale, NJ: Erlbaum.
- Buss, D.(1988). From vigilance to violence: Tactics of mate retention in American undergraduates. *Ethology and Sociobiology*, 9, 291-317.
- Buss, D. M. et al.(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ng mates: 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5-47.
- Cate, R., & Koval, J.(1983). Hetrosexual relationship development: Is it really a sequential process? *Adolescence*, 18, 505-514.
- Centers, R.(1975). *Sexual attraction and love: An instrument theory*. Springfield, IL: Thomas.
- Dicks, H.(1967). *Marital tensions*. New York: Basic Books.
- Dyer, K.(1988).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 and mating with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Sex, Marriage and Family*, 9, 107-119.
- Eckland, B.(1982). Theories of mate selection. *Social Biology*, 29, 7-21.
- Edwards, W.(1954).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51, 380-417.
- Feingold, A.(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Felmlee, D., Sprecher, S., & Bassin, E.(1990). The dissolu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A hazard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3-30.
- Fletcher, G. J. O., Simpson, J. A., Thomas, G., & Giles, L.(1999). Ide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72-89.
- Freud, S.(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Paperson meta-psychology*. New York: Collier.
- Gans, M.(1975). *Separation-individuation, deprivation and closeness in adult love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SPP-SP.
- Gough, H. G.(1973). Personality assessment in the study of population. In J. T. Fawcett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pp.329-353). New York: Basic Books.
- Hartmann, H.(1950).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Hendrick, S. S.(1988). A generic measur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3-98.
- Hendrix, H.(1988). *Getting the love you want*. New York: Harper & Row.
- Howard, J. A., Blumstein, P., & Schwartz, P.(1987). Social or evolutionary theories? Some observations on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194-200.
- Jackson, D.(1957). The question of family homeostasis. *Psychiatric Quarterly*, 31, 79-90.
- Jacobson, D., & Margolin, G.(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enrick, D., Sadalla, E., Groth, G. & Trost, M.(1990). Evolution, traits, and the stages of human courtship: Qualifying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58, 97-116.
- Kenrick, D. T., Groth, G. E., Trost, M. R., & Sadalla, E. K.(1993). Integrating evolutionary and social exchange perspectives on relationships: Effects

- of gender, self-appraisal, and involvement level on mate selection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51-969.
- Kerckhoff, A., & Davis, K.(1962). Value concern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295-323.
- Kirshner, S., & Kirshner, D.(1986). *Compreh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Levinger, G., Senn, D., & Jorgensen, B.(1970). Progress toward permanence in courtship: A test of the Kerckhoff-Davis hypothesis. *Sociometry*, 33, 427-433.
- Mahler, M.(1972). On the first three subphases of the separation individuation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3, 333-338.
- Mahler, M.,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 Melton, W., & Thomas, D. L.(1976). Instrumented and expressive values in mate selection of black and whi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3), 509-517.
- Miller, S., Nunnally, E., & Wackman, D.(1988). *Connecting with self and other*. Littleton, C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 Murstein, B.(1970). Stimulus-value-role-a theory of marital cho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465-481.
- Murstein, B.(1976). *Who will marry whom?* New York: Springer.
- Nadelson, C.(1978). Twentieth century trends in marriage and marital therapy. In T. Poalino & B. McGrady(Eds.) *Marriage and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Napier, A.(1971). The marriage of families: Cross-generational complementarity. *Family Process*, 10, 373-395.
- Napier, A.(1988). *The fragile bond*. New York: Harper and Row.
- Neill, J., & Kniskern, D.(1982). *From psyche to system: The evolving therapy of Carl Whitaker*. New York: Guilford Press.
- Ohmann, O.(1947). The psychology of attraction. In H. Jordan (Ed.) *You and marriage*. New York: Wiley.
- Powers, E.(1971). Thirty years of research on ideal mate characteristics: What do we know?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 1-9.
- Reagan, P. C.(1998). What if you can't get what you want? Willingness to compromise ideal mate selection standards as a function of sex, mate value and relationship contex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294-1303.
- Reik, T.(1957). *Of love and hate*. New York: Farrar, Strauss & Cudahy.
- Reiss, I.(1960). Toward a sociology of the heterosexual love relationship. *Marriage and Family Living*, 32, 138-145.
- Rusbult, C. E.(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Predicting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involvement: An assessment of the generalizability of the investment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81-89.
- Rushton, J., Russell, R. & Wells, P.(1985). Evidence for genetic similarity theory: Beyond kin selection. *Behavior Genetics*, 14, 179-193.
- Sadalla, E. K., Kenrick, D. T., & Vershure, B.(1987). Dominance and heterosexu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30-738.

- Sager, C.(1976). *Marital contracts and couple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Satir, V.(1988). *The new people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arf, M.(1987). *Intimate partners: Patterns in love and marriage*. New York: Random House.
- Schoen, R., & Wooldredge, J.(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9-71 and 197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65-481.
- Slipp, S.(1984). *Object relations: A dynamic bridge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Slipp, S.(1988).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object relations family 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South, S. J.(1991). Sociodemographic differential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28-940.
- Surra, C. A.(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58-865.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1994). *Social Psychology* (8th ed.). N.J.: Prentice-Hall.
- Thibaut, J., & Kelley, H.(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rivers, R.(1985). *Social evolution*. Menlo Park, CA: Benjamin/Cummings.
- Trivers, R.(1972). Parental investment and sexual selection. In B. Campbell (Ed.) *Sexual selection and the descent of man*. Aldine.
- Winch, R.(1952). *The modern family*. New York: Holt.
- Winch, R.(1955). The theory of complementary needs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552-555.
- Winch, R.(1958). *Mate selection: A study of complementary needs*. Harper & Row.
- Winch, R., Ktones, T., & Ktones, V.(1954). The theory of complementary needs in mate selection: An analytic and descriptiv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241-249.

Characteristics Related to Satisfaction and Commitment of Dating Relationships

Dae-Shik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desirability factors of mate characteristics in Korean college students, (2)identification of the influences of desirability of mate characteristics on intentions of dating and marriage relationships, and (3)identification of relation between qualities of relationships(satisfaction, commitment and love) and mate characteristics, social exchange variables and other interested variable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ree studies were performed. The factor analysis of desirability of mate characteristics showed 13 factors and these factors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Buss and Barnes(1986). The desirability of mate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intentions of dating and marriage relationships. And factors of mate characteristics also predicted the qualities of relationships(satisfaction, commitment and love) along with several social exchange variables and other interested variables.